제331회국회
(임시회·폐회중)

정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임 시 회 의 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3월10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임종룡) 인사청문회

심사된 안건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임종룡) 인사청문회 ····· 1

(09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이 보임되신 이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새롭게 정무위에 오게 된 이재영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자주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아마 여기서 꽁지인 것 같은데, 이 자리가 말하듯이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인 만큼 여기 계신 야당·여당 위원님들 잘 모시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고맙습니다.

새로 부임해서 그런지 오늘 국회방송에서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는 청원심사소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임종룡) 인사청문회

(09시02분)

○위원장 정우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임종룡)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고위공직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금융 정책 현안들에 대한 기본 입장과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다음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 및 미제출 사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5년 3월 10일

공직후보자 임종룡

○위원장 정우택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로 지명받은 임종룡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이번 청문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자질과 업무능력을 검증받고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조언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금융산업은 97년 이후 시스템 안정과 인프라 구축 노력 등에 힘입어 양적·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성장하였으나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의 국면을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 수익구조 등에서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경쟁력은 낮고 해외 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 중개가 이루어짐에 따라 금융의 역동성·혁신성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처질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 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금융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여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 기술 등 우리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당국부터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플레잉 필드(Playing Field)를 관리하고 키워 나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 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금융 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금융 관행들을 찾아내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혁신과 함께 금융회사도 인사, 조직, 운영 측면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서 시장과 소비자에게 스스로 책임지는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혁신적인 자금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실제 자금 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심장인 자본시장이 활발히 뛰고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남아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습니다.

사모펀드제도의 설립·운용·판매 규제의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이 시장별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비금융 분야와의 융합,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해 나가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하여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하여 시장질서, 소비자 보호와 같은 규제는 정교화하고 위반 시 엄중하게 제재하는 한편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기재부 및 한은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확충하여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32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처 간 다양한 정책현안을 조정한 경험도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근무경험도 금융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금융개혁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 군포 출신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경기도 군포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오늘 새로운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총 집행하시는 금융수장을 맞는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평생 공직에서 봉사하셨고 또 새롭게 우리 금융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을 소관 국회의원으로서 축하하고 덕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벽두부터 그럴 수 없으므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청문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제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장전입·투기·탈루·표절, 청문회 4종 세트 이번에도' 이런 기사 제목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봤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 제목은 바로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는 아주 필수조건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점에는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는 국무총리님까지 그런 청문회를 겪고 통과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참 착잡하기만 합니다.

만약에 정석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청문회를 진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아마 100% 전부 낙제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총리이고 장관후보자들입니다. 후보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후보자 역시 청문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사퇴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고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 자기 관리에 충실히 노력하겠다 하는 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후보자의 부도덕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에 현재 거주 중인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가 6억 7000 아파트인데 2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걸 인정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운계약서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다운계약서를 왜 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당시에 집을 살 때 혹은 팔 때의 관행이 기본적으로 세금의 처리 문제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맡겨서 의뢰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철저히 챙겼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행에 따라서……

○이학영 위원 그때는 다운계약서가 뭔지 모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학영 위원 그 당시에는 다운계약서를 몰랐고 이제 아셨다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다운계약서가 그 이후에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 거론이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부동산을 사고팔 때 더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다운계약서의 목적이 뭐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학영 위원 보통 그 당시에 다운계약서 쓸 때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는 낮춰서 씁니다. 그 당시의 관행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행이니까 몰랐다고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후보자의 경우는 6억 7000을 2억으로 신고했어요. 거의 70% 가까이 다운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건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입니다, 더더구나 아무리 그 당시 법이 관행으로 돼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해되세요? 어떻게 6억 7000 실가의 아파트를 2억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 가격 알았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계약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계약서는 물론 제가 작성했으니 계약서는 봤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는 그 처리에 있어서 통상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서 나중에 세금고지서가 오면 그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철저히 챙겨봤어야 하는데……

○이학영 위원 하여튼 본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까 아신다고 했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계약서는……

○이학영 위원 결국은 그러면 다운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있다는 것도 아셨을 테고 또 실제 6억 7000이 2억으로 줄었다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부동산……

○이학영 위원 1억이나 2억을 깎아서 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거의 20, 30% 가격으로 줄여 버린 데 대해서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건 범죄다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 불찰이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부동산 중개사가 그 가격으로 신고하는지 제가 더 철저히 봤어야 하는데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자료도 냈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그 당시는 2006년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공인중개사가 관행으로 했던 것을 묵인했는데 실수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보고…… 이렇게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그건 범죄행위 수준인데 그걸 묵과했는지, 공직자로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아마 이해가 안 갈 겁니다. 현재 그 당시에 정직하게 신고했다면 당시 취·등록세율이 5.8%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3800여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11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충 2700만 원의 세금을 안 내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같으면 범죄지요. 그런데 최근에 연말정산 파동이 있었습니다. 40만 원, 50만 원 연말정산 파동으로 그 한 달분……

○위원장 정우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최근의 연말정산 파동에서 얼마나 서민들이 세금에 민감한지 아실 겁니다, 가계부담을 크게 지는지. 그런데 2800만 원이면 평균 3000만 원 연봉소득자의 10년의 세금에 해당됩니다. 후보자는 10년의 봉급생활자 서민들의 세금을 한꺼번에 탈루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어떤 직책에 계셨지요, 정부의?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2004년에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이학영 위원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이셨네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건교부와 더불어 그 당시 참여정부 하에서 부동산정책 주무 부서였습니다. 어떻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시고 내가 공직자로서 부족하다…… 사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당시에 비록 관행이었다 해도 제가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우선 금융위원장 내정되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요. 작년까지 농해수위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때는 우리 내정자님을 같이 뵈었지요. 금융지주에 취임하실 때 제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부드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조직인 농협을 소통과 화합으로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전임 회장이 제갈공명이 와도 농협의 내부 갈등을 진정시키는 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 노력을 하셔서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회장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후보자께서 최우선 과제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겠지요. 금융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고 또 금융산업을 관치와 규제가 아니라 시장 원리가 바탕이 되도록 작동시키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인사말씀에서 여러 가지 금융정책에 대해서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다시 재차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운룡 위원 가계부채를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어요. 관리능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나 또 한국은행과 부처 간 조정을 잘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최근 들어서는 전세가 상승하고 그리고 금융비용이 저금리에 따라서 감소함에 따라서 역시 주택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계부채가 약 한 40조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늘어난 겁니다.

○이운룡 위원 그렇지요? 주담대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운룡 위원 작년 8월에 LTV나 DTI 완화로 인한 대출 비용이 워낙 지금 증가가 된 걸로 보면 맞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운룡 위원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 잠재적인 위험이 지금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운룡 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장이 되시는 금융위원회의 자세는 아직까지는 좀 안이한 자세에 머무는 것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금융위원회가 낸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채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아직 관리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경제성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세가 자칫 금융시장을 좀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또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융위 자료도 저 봤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아직까지 시스템 리스크에 이를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후보자도 그런 내용에는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역시 가계부채 구조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고 그리고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아직 부채 수준이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실제 LTV 비율이라든가 우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라든가 혹은 약 0.5% 정도 되는 연체율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해 보면 최근 들어 IMF나 무디스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직 시스템 리스크다라고 할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 다만 그 증가속도나 이런 것이 다소 빠르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앞으로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가계부채는 대출 총량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경제 활성화로 소득을 늘려 가지고 그 부채 비중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자세보다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의 총량이 워낙 지금 많은 상태로 느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디플레 우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갑자기 닥쳐올 경기침체나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돌린다든가 또 금리를 낮추는 미봉책 갖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각별하게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다음은 기술금융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금융위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이것 기술금융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 초기에는 은행 자율로 기술금융을 실시하는 실적이 1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기보나 온렌딩 같은 정책금융에 의존했는데 지금은 현재 이게 완전 수치가 역전이 돼 있어요. 은행 자율로 실시하는 게 7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게 은행이 제대로 준비가 됐느냐 하는 걸 짚어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은행 임원을 한 분 불러다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은행들이 기술심사 역량이 좀 부족하다 해서 기술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이라든가 특허법인 등 다양한 심사기관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저도 농협에 있을 때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농협은행을 통해서 상세히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술금융이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즉 은행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즉 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기술금융이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운룡 위원 은행이 그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갖추어 주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일단은 인력의 문제……

○이운룡 위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신보나 이런 데서 70이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초기단계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운룡 위원 예,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그런 정책으로만 가지 말고 대출 부실과 리스크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기술금융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부임한다면 일단 기술금융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는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기업들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면밀히 따져보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금융위원장 후보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도 상당 기간 동안 행정부에서 국정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어떤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위해서는 정책의 정교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믿고 함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책 당사자가 정부에 보내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정교함과 신뢰는 특히 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장의 임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께서도 내정 후의 인터뷰에서 보면 신뢰는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힘이자 가장 원초적인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있습니다. 즉 신뢰가 없으면 금융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2·17 합의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2·17 합의서는 대한민국 3대 헌법기관인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에 의해서 그 효력이 입증된 합의서입니다.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인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서의 유효성을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5년 경과 후에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합의할 수 있으되 이런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타당하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저기에 띄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행정부인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그간 노사합의를 전제로 해서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것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이 앞에 있습니다. 잘 보입니다.

○한명숙 위원 있습니까?

보시면 '전임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노사 양 당사자 합의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고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것,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당사자 간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조기 통합을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의 흐름에 발맞춰서 입장이 변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합병 예비인가가 노사 간의 합의 없이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을 받아 줬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부와 정책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여기에서 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으면 돌아오는 것은 손해라는 뼈아픈 교훈만 시장에 던져 준 꼴이 됐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역주행을 사법부가 바로잡아 줬습니다. 사법부도 2·17 합의서의 유효성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노사가 서로 장기간 대립해서 오다가 금융위원회의 중재 아래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서 신중하게 작성된 것으로 2·17 합의서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유효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헌법기관이 그 유효성을 확인한 2·17 합의서는 존중되어야 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하나·외환 통합

문제는 그 합의서의 정신에 따라서 노사 양측 간에 합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17 합의서의 유효성을 묻는 본 위원의 질의에 하나·외환 통합 문제는 노사 양측 간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저에게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금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시장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주고 금융위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심판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심판의 판결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만약에 하나금융지주가 노조와의 동의 없이 조기 통합을 다시 추진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서면질의를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외환·하나은행 측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노조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합병 예비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외환하고 하나의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답변에는 통합을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답변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유추해 보면 2·17 합의서를 존중해서 조기 통합이 필요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래야 예비인가를 승인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유추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기본적으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외환은행이 진정으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조기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노사 간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화해서 풀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된다면 노사 간의 동의 없는 조기 통합은 승인하실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노사 양측 간 합의 과정을 거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지금 청문회에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반드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하나금융지주회사와의 통합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신뢰가 형성되고 시장이 작동하고 금융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먼저 후보자 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감사합니다.

○이재영 위원 뉴스를 보니까 한때 부처에 몸을 담고 계셨을 때 후배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선배로서 몇 번이고 선택됐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지요? 본인 스스로 그것이 어떤 배경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부족한 게 많은데 후배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봐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도 어떻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다만 하나는 역시 많은 소통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더들이 가져야 될 자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또 후배들의 역량을 키워 주고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잘 소통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금융위원장이 되시면 소통의 능력, 시장과의 소통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포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민간 금융회사의 경험을 했습니다.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감독당국의 태도가 현장에 어떻게 투영되고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감안되는지 하는 등을 많이 봐 왔습니다. 역시 현장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이나 감독당국의 방향은 현장에 기초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계속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민간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짧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개월이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1년 8개월 돼서 한 20개월쯤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 20개월, 짧게 볼 수도 있고 열심히만 했다면 충분히 소비자금융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산업, 우리가 금융산업이라고 하지요. 금융산업과 금융감독 체계가 지금 한 곳에서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선수와 심판이,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 노릇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사전에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약간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좀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러니까 감독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관한 구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소비자 보호 문제는 감독기능과 구분이 돼서 강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제가 청문회 과정에서 공부를 해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보호 문제는 보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좀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답변은 청문회 과정을 공부하는, 준비하는 과정 전에 나왔던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 취지가 위원님께 충분히 전달이 안 됐으면 제 표현상의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소비자 보호 기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될수록 더 강화되어야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앞서 존경하는 이운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가계부채 현황이 그다지 우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지켜봐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한다, 그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증가 속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서 관리되고 검토되고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것은 좀 두고 봐도 괜찮은 정도로 지금 적정 수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위 말하는 속도, 트렌드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빠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매우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시장 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시장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이 붕괴하면,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라든지 질, 특히 퀄리티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금융당국이 지금까지는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속도나 구조 이런 것은 금융위원회가 첫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서 계속 관리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역시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 증가율의 측면에서 보면 한 9~10%로 아주 높게 설정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5% 수준, 6% 초반 수준까지 떨어졌었는데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라졌다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의 관리 문제를 아주 면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듯이 속도 자체, 총량적인 속도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는 좀 있지만 그 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은 빠르지요? 그리고 그것은 OECD 대비해서 높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습니다. 우리가 160%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OECD 평균인 134%에 비교하자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 것이 곧 뇌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진짜 위험한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한 검증과 아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속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이신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임종룡 후보자 내정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지식을 쌓고 실무경험도 있고 또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번에도 네 분의 장관 내정자 중에 네 분이 모두 위장전입에 해당됐을 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 기준이 참으로 많이 쇠락했다 하는 깊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이후 과연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임 후보자에게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제 내정이 되시면,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 일반 은행 인사에 개입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민간 금융기관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금융위원장 스스로는 개입하지 않지만 청와대라든가 정치권이 고위임원 인사에 개입하게 할 경우에 임 위원장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위원장 자신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다른 외부기관에서의 부당한 인사압력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책임지는 금융수장으로서 이것을 막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최근에 국민은행, KB 사태를 보면 새로운 회장이 들어선 이후에 사외이사 인선 내용을 보면 새로운 방식,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한 감을 주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낙하산 인사로 또 다시 은행의 자율성을 극도로 해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금융지주 사장을 부활하려고 했으나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인해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고 300조를 다루는 금융그룹에서 감사 선임을 3개월째 하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계열사 사장에 KB 사태로 책임을 진 사람이 다시 들어서고 또 금융연구원장이라든가 또 우리은행의 사외이사라든가 외부의 압력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기사는 봤습니다.

○박병석 위원 여기에 등장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어요. 서금회,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출신, 친박인사 이 세 가지가 공통분모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자율성을 회복해 주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치가 아닌 심판으로 남고자 하신다면 바로 KB 사태부터 외부의 부당한 인사를 막고 자율적으로 소신껏 선임해라, 단 경영에 관해서는 회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박병석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KB의 지주회사 사장, 감사 선임, 계열사 사장 이런 것에 대해서 KB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인사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러한 소신을 관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것을 관철시키면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계로부터 가장 중요한 신뢰를 받을 것이고 이것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금융위원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또다시 관피아, 정피아, 낙하산의 부당한 압력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잘 아시다시피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KB지주회사를 둘러싼 회장과 행장의 갈등은 정치적 배경이 다른 두 정권의 사람들이 벌인 파워게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KB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계 전체가 국제신인도에서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 정부는 그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경고를 드리고, 금융위원장의 신념과 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금융위원장이 된다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가계부채 문제에 관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증가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하는 데는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증가의 속도가 다소 빠릅니다.

○박병석 위원 임계치에 도달했다, 경고의 수준에 왔다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관찰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몇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위험 수준에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작년 말 가계부채의 증가 수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6.7%가 늘었는데 GDP 성장률은 3.3%였어요. 즉 GDP 성장률의 2배 이상이 가계부채의 증가율이다, 이것은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금융위, 대한민국 정부는 작년 말 160%에서 17년까지 5%p를 낮추자고 했는데 단 1%p도 낮추기는커녕 거꾸로 165%로 5%p나 늘었다, 즉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세 번째는 가계부채 비율이 위험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보는 총체적 요소 중의 하나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몇 %냐 하는 거지요. WEF(세계경제포럼)에서는 75% 이상이면 위험하다 하는 경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85%쯤 됩니다.

○박병석 위원 85%입니다. 그렇습니다.

WEF가 경고한 75%보다 10%p가 높은 겁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볼 때 우리가 임계치에 도달했다 하는 데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요.

시간 때문에 딱 정리하는데, 가계부채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첫째, 제2금융권의 돈이 제1금융권으로 가기 때문에 부담이 줄겠다, 아닙니다. 풍선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즉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뭐라고 그랬느냐, DTI·LTV를 완화해 주면 제2금융권에서 쓰던 사람들이 제2금융권을 갚고 제1금융권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를 보면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즉 부채의 질이 개선되지 않았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 쓴 사람 중에서 집 구입에 쓴 사람의 비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집 담보해서 빌린 돈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집 구입에 쓴 비중이 47%, 무려 4%p가 낮아진 것이고요 생활비로 쓴 게 5%p가 높아진 42%입니다.

질이 더 악화됐다, 이제는 대단한 경각심을 갖고 총 규모를 관리할 때다 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아주 정확한 여러 가지 분석을 주셔서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경제 그리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 그리고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지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 분할 상환으로 바꾸는 노력을 계속 했었고요.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만약 취임하게 된다면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이 약 570조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고 굉장히 서민경제를 아프게 했던 주택 경기를 되살려 나가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좀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나 상가담보대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금융권의 대출, 이런 비주택 대출이 455조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적극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밖에서 보니까 관계기관 간에 조금씩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맞추고 같이 모니터링해야 하지 않겠느냐. 즉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위만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부처 간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부총리께나 혹은 한은 총재께 같이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것을 논의해 보자,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같은 대응책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요점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 금융회사가 중요합니다. 금융회사 스스로 과연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이냐. 즉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 즉 심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유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받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는 제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의 중요한 금융 중책을……

후보자로 내정되신 임종룡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감사합니다.

○김상민 위원 좀 아까 '신뢰가 없으면 금융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4년 NH농협 카드 정보 유출 사태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상민 위원 그때 온 국민이 많은 충격을 받았었지요. 저도 NH농협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6월에는 공인인증서 이용으로 추정되는 인출 사고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인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러니까 1억 2000만 원이 인출된 것은 농협의 단위조합에서, 지역조합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즉시 현지 경찰서에서 수사한 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

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받고 나오기에는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아까 앞서서 후보자님께서 '신뢰가 없으면 금융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연 국민이 어떤 신뢰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최근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결제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모바일을 통한 결제가 많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핀테크의 일종이겠지요. 그런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문제는 역시 보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고 또 금융 소비자들도 자기의 정보가 자기의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이 말씀은 굉장히……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다음에 정부……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지금 이 발언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되는 발언입니다.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상민 위원 지금 훈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물론입니다.

○김상민 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래서 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국민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를 여쭤 보는 게 아니라 후보자님께 이런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한 결제들이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 기타 등등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준비나 후보자님의 인식과 생각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아무튼 금융결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로서도 금융회사가 보안체계를 적정하게 갖추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행태도 유도하고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보안원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FDS 정보를 갖다 공유를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법상의 그런 강화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여러 가지 민간 경력이 많으시고 또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관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대비책이나 또 보완책들을 가지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예,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삼성이 영국 브랜드파이낸스에서 세계 2등 브랜드로 뽑힌 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사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왜 이러한 글로벌한 기업이 대한민국 금융회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력, 수익력, 인적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 금융산업들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민 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이고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금융산업이라는 것은 막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중요한 기능을 하지요.

○김상민 위원 그러면 뭔가 이 금융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가 나오지 않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지금 지배구조 문제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는 금산분리가 제대로 강화가 이루어져서 제2금융권을 가지고 이것을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활성화와 경쟁력의 관점이 아니라 산업자본 즉 회사의 어떤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식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금융산업을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울 수 있는 복안과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 더불어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첫 번째 금산분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그 원칙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산분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두 번째로 지배구조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2금융권의 지배구조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금융위가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만들고 또 지금 국회 정무위에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충실히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명은 금융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금융당국이 달라져야 하고, 즉 자율책임 문화가 조성되어야 되고 금융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낡은 규제와 틀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제 소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상민 위원 우리 위원장후보님, 그것은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수많은 훌륭한 경력과 과정을 통해서 무슨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금융산업이 발전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상민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으로서 어떻게, 우리 금융산업의 정책에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결하고 이루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어떤 협조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기타 등등, 위원회 차원에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계획과 철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것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흡족한 답변을 못 들으셨다고 생각할 텐데……

자, 원인. 원인은 금융권이 역시 보수적 관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낡은 규제와 금융감독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6개 정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을 쇄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회사가 책임지는 문화, 그리고 무사안일한 보신주의의 그러한 문화를 타파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금융 정착, 그리고 핀테크 육성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키워 나가야 할 부분은 역시 자본시장입니다.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듭 말씀드리자면 금융규제의 틀을 이제 자율과 그리고 경쟁을 위주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청문회 제도의 유래가 된 미국에서요, 청문회 후보자가 탈세를 하고도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된 사례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단 한 건이라도 있었다는 사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지는 않겠지요.

○김기식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세금 납부야말로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탈세가 확인되고도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미국의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것이고요.

앞서 이학영 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2004년도 3월 달에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6억 7000만 원에 매입하고도 매매가액을 2억에 신고했습니다. 제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참여연대 시절부터 20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겪어 보았습니다마는 다운계약서가 여러 번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3분의 1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20년 만에 제가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3800만 원대의 세금을 1200만 원대로 떨어뜨려서 2700만 원의 세금을 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고상의 관행 문제가 아니고 이 탈세의 규모로 보면 적극적인 탈세 행위다라고 이야기해도 이 방송을 보실 국민들께서 아마 과거에 2006년 이전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관행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셨던 분이 계셨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로 다운계약서를 낮춰서 신고한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까 이 위원님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 이전에 집을 살 때 사실은 취득세·등록세에 대한 신고를……

○김기식 위원 세금 탈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뭐 탈세의 의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기식 위원 무려 2700만 원의 세금을 탈세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85년도에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8개월 동안 주소를 이전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 주택에 거주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없습니다.

○김기식 위원 거주하지 않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위장전입 인정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장전입이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왜 위장전입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때 그것도 한 30년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직장주택조합이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주변의 동료가 주소를 옮기면 조합주택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요, 이미 그때 결혼하시고서 부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택청약 자격 자체가 없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김기식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경제부처의 사무관으로 계셨던 분이 이미 기 주택을 보유하면 주택청약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 당시에 강남구 서초동—지금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만—일대가 개발 열기가 굉장히 높았던 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러 케이스로 소위 투기 목적으로 개발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이 굉장히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문제는 후보자가 주택청약을 위해서 위장전입했다고 시인을 하면서도 그 8개월 동안 주택청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주택청약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면 위장전입을 한 직후에 주택청약을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 집이 원래 외삼촌집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외사촌 형님 집입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다가 지금 이제 8개월 뒤에 부인과 살고 있는 주소지로 다시 옮기셨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것이 투기 목적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주택청약을 안 한 것은 당연히 제가 자격이 없음을 알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 않은 것이고요.

○김기식 위원 그런데 8개월 동안 왜 유지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주소를 바로 옮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도 바쁘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 주소의 이전으로 인해서 제가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여하한 혜택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실패한,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좀 세심하게……

○김기식 위원 잠깐만요, 앞서 우리 박병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후보자의 소위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관피아, 관피아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니

까요, 제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금융회사 서른네 곳 중에서, 268명의 임원 중에서 112명이 낙하산인데 관피아와 정피아, 다시 말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율이 48명으로 전체의 한 18%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간에는 '관피아 막았더니 정피아 내려온다', 심지어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임원 8명 중에서 7명이 낙하산인데 그중에 4명이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런 청와대와 정치권의 낙하산 압력 물리칠 수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민간 금융회사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의 기준은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기식 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부적절한 인사는 받지 않겠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원칙대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구체적으로요, KB와 관련해서 지금 KB 윤종규 회장 등장하고 나서 지주 사장제도를 부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청와대하고 정치권에서 18대 국회의원이었던 H모 씨, 혹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도 몸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직 계열사 사장인 J모 씨로 해 달라라고 인사청탁이 오니까 윤종규 회장이 '그것은 못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사장 인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조직시스템 개편과 인사가 정치권의 압력으로 인해서, 인사 문제로 인해서 보류되고 있습니다.

지금 KB 내분사태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부행장의 KB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같은 소위 관료 출신의 모 씨가 요구해서 되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이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인 김광두 미래연구원장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고위 인사와 권력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서 금융회사의 인사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 요즘 금융지주회장—이것이 KB입니다—누구를 자르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 그래서 문고리 3인방 중에서 1명하고 가깝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문고리 3인방 중에 1명이 '나는 아니고 안종범 경제수석이다, 위스콘신 인맥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누군지 아시지요, 이 금융권 고위 인사가, 임종룡 후보자님?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는 봤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김기식 위원 아니, 지금 금융권 인사에 청와대나 정치권의 청탁과 압력을 받아서 누가 지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청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까 박병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금융위의 고위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까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야 그 말의 진정성과 진실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소신 있게 원칙을 지켜서 인사하겠다. 더 이상 정피아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을 국민이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인사 문제에 대한 소신을 밝혀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인사 문제는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의지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등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H모 씨나 J모 씨, 지주회사 사장으로 선임하는 일 없을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위원님.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위원 김용태입니다.

임 후보자님, 다운계약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2005년, 즉 실거래가로 신고가 강제되기 전에 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지금 비판하셨는데 사과하셨고요, 2005년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 이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용태 위원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다운계약서 관련해서 본인이 탈세를 목적으로 의도하거나 뭔가 계획하고 방조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결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관행에 따랐는데 그것을……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하셨으니까요, 제가 따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정책 관련해서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속된 말로 쉽게 얘기하면 금융은 금리 장사인데, 지금 돈 수요가 예전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어 가지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금융회사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극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먹고사는 구조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그런데 참 어렵지요, 이런 문제라는 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구조를 뜯어고쳐야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도 동시에 달성해야 되니까요. 산업구조를 뜯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쟁을 유도해서 새로운 영역을 모든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개발해 내고 그 리스크를 다 떠안는 이런 게임들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당국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핀테크는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도전일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권 간의 영역들을 허무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하물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핀테크 같은 시장을 우리가 과연 열어젖힐 수 있겠는가? 심지어는 '핀테크 시장을 연다면 아마 정부 조직 개편해야 될 거다', '과연 금융위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임 후보자님의 간단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즉 금융당국이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충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동시에 달성 가능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금융산업을 구조개혁하면서 한편으로 소비자 보호도 하고, 그리고 또 실물경제의 지원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화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후보자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 볼까요? 아주 실무적으로 지금 알리페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결제서비스를 대행하는 것을 우리 한국에서도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부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현재 이게 법규에 있습니까, 허용할 수 있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규정이 없어서 지금 그냥 허용하고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현재 알리페이처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신도 받겠다, 필요하면 대출도 해 주겠다라고 나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역시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김용태 위원 그리고 나아가서 알리페이처럼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가서비스, 그러니까 여행상품을 팔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변주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형태의 핀테크, 나아가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하고 있는 중간에 금융기관은 완전히 빠지고 신용평가회사도, 전통적인 신용평가회사는 빠지고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를 그냥 동시에 연결시켜 준 다음에 일반 회사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 회사 내지 이 개인은 이러이러한 신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라. 리스크는 당신들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소위 대출과…… 아, 이건 대출이라고 할 수 없구나. 자금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당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여

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혹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하에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참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핀테크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요, 기존에 있는 법규로는 엄두가 안 나요. 과연 이런 서비스가 금융이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회사 하나 차려 놓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등록받은 다음에 '이러한 사람들은 아마 이 정도의 신용이 될 것 같다'라고 자의적으로 평가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자금 공급하는 사람들이 보고서 '대신 리스크는 당신들이 져라'라고 하는 이런 사업 모형을 과연 우리가 허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반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우리가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더라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외국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이 돼서 저벅저벅 우리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금융위에서는 제반 관련 법령에 대한 제·개정 내지 이런 소위 정비 계획을 갖고 있나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농협에 있어 보니까요, 핀테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 보니까 제가 느낀 제일 문제점은 뭐였느냐? 금융회사는 어떤 기술이 응용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이 기술이 많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좋은 게 많은데 과연 어느 것이 금융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고 이용될 때 도대체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것입니다. 즉 업계, 금융회사, 정부 간에 긴밀하게 서로 논의가 되고 정보와 서로의 지식이 교류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다고 하면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게 핀테크의 첫 출발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 후보자님, 제가 인격을 믿고 감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금융권 대토론회 있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용태 위원 정부하고 모든 해당 업계, 제가 여담으로 들었지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 회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금융위 관료들께서 문서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툭툭툭 금융회사들에게 지시하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뒤에 조금 곤욕을 치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장에 계실 때 정말 그런 말씀 대놓고 하셨었으니까요, 거꾸로 이제 앞으로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시면 금융회사 현장에 있을 때의 애로사항, 금융당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위원입니다.

임 후보자님은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때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논란이 되었고요. 인수 후에 무리하게 외환카드사를 합병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재판까지 받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이 올 1월에 론스타에게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손해배상조로 400여억 원 이상을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봤습니다.

○김기준 위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론스타는 2011년 말에 유죄가 확정되었고요, 외환은행은 2012년 2월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외환은행은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정우택 위원장,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사건의 개요에 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기준 위원 예,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조금 더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기준 위원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은행의 불필요한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킨 겁니다. 더군다나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이것을 결행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영상 배임 혐의를 따지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무슨 명목으로 정확히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니요, 공부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에 근거해서 배임 혐의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금융위원회가 알고 있어야지요. 금융위원장이 당연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있으면 고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4조 6000억 원짜리 ISD 소송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고를 하라고 그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서 그런다는 세간의 의혹이 있습니다.

ISD 소송을 패하지 않으려면 비밀에 부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공개하고 사회적 공론을 거쳐서 대책을 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ISD 소송 문제는 조만간 변론이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왜 론스타가 ISD 소송을 했는지는 그 전 과정을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아주 적반하장 격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얻고 나서 '먹튀'라는 비판도 받았으면서도 다시 정부에다가 4조 6000억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HSBC로, 홍상은행으로 팔 수 있었을 때 금융당국이 승인 안 해 줬다, 그때 팔았으면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텐데…… 그리고 세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4조 6000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빌미를 제공한 것은 금융당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론스타가 외환카드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확정이 되었을 때 당연히 금융당국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조차도 얻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그전에도 어차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하고 은행을 매각하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왜 그때 안 해 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필요하면 관련 금융위, 금융당국의 관련자들을 처벌해야지만 우리 혈세 같은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패소하면요, 이것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적당한 때에 그 전 과정을, ISD 소송 관련 부분을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1월 12일에 동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는데요, 그때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대의견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 이러한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융위가 당초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추진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회사를 통해서 신설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되

면서 이 국회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달아진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보고받았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용정보집중업무는 민간의 영역이라서 민간에서 지난 30여 년간 특별한 일 없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민간기구가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주관이 돼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설하면 이 기관은 분명히 권력화될 가능성이 클 것이고,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더욱 큰 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우리 임 후보자께서 늘 얘기하시는 자율에 입각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연합회가 주관하고……

○위원장대리 김용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거기에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집중기관 통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립적이나 보안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고받기에는 각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관들이 서로 논의해서 입장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기준 위원 예, 논의해서 합의를 하는데 금융위가 주도해서 뭔가 새로운 신설 기관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짜고 그것을 갖다가 회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해서 신용정보를 집중해서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취지인 것이지 어떤 기관을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을……

○김기준 위원 그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달린 부대의견이라는 것을 존중하시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겠고요. 집중기관들이 조속히 자율적으로 잘 합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채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우선 금융위원회 후보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모처럼 아주 잘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아쉽게도 위장전입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 말로만 하는 개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체감되는 개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경제 생태계를 바꾸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한 나라의 경제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몇 가지 여력이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516조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은행 카드사 밴사, 모두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대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특히 이 금융위원회하고 관련돼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조 9000억 원이 됐습니다, 14년 말에.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카드 수수료를 낮추면 카드사의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밴사는 5년 만에 시장규모가 2배로, 당기순이익도 2배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백화점은 특약매입을 줄여야 되고, 대형마트는 변종 장려금을 줄여야 되고, 홈쇼핑은 중소기업 수수료를 내려야 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카드 수수료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 대개 동감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문제를 전격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 이것이 바로 시장 골목상권, 중소기업 납품업체를 살리는 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서 '밴 수수료 합리화를 통한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밴사 관련 입법이 완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렇게 돼서 정률제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가 됐는데 이것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자께서 위원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이 밴 수수료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지금 올해가 아마 카드업계 수수료 원가를 조정할 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도 인하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밴사에 관한 여러 가지 체계도 바뀌고 했으므로 카드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인하될 여건은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켜보고 한번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크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낮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3%로 돼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자금조달비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카드니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대손비용이 발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1.53%를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향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에도 그 특성을 반영해서 합리적인 수수료의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가계부채 문제에 관한 답변을 지금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험한 수위는 아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는 그 표현을 빌리자면 '시스템 리스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가계부채의 증가비율이 6.6%나 증가하는 그런 증가의 속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음으로써 이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LTV·DTI를 완화해서 부동산이 풀리고 뭔가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아무래도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증가를 높였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증가하고 집이 매매가 증가되는 것은 전셋값이 폭등하면서 거기에 내몰린 사람들이 지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계부채에 대한 더 적극적인, 더 주의를 요하는 그런 부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 만들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대기업 보험사들이 손해사정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1억~2억 정도 되는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이 일감 몰아주기, 이걸 개선해야 될 필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걸 개선하라고 금융위가 지적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이 문제도 챙겨서,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취임하게 되면 꼭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핀테크 산업 활성화 문제에 대해

서 김용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IT의 변화 또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 기술이 융합된 상황 속에서 금융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는 세계 제일로 가고 있는데 금융은 지금 낙후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산업동력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전향적인 말씀도 계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화, 기술의 변화 또 생활의 변화, 이 산업의 변화를 타고 가면서, 변화와 혁신을 타고 가면서 금융이 이것을 적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 사고라든지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갖지 못하게 되면 사업 전체가, 산업 전체가 망가질 뿐만 아니라 금융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지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모아 가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애플 페이 삼성페이 페이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계가 변하고 있고요 기업이 변하고 있고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금융이 이것을 규제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인터넷뱅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일단 지금 현재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위원 전반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타고 가면서 나라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선 규제하고 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변화를 타고 가면서 거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가시면 아마 좋은 활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병의 김을동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회의 새 사령탑으로 내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감사합니다.

○김을동 위원 후보자께서는 오랜 관료 생활과 2년간 역임한 NH지주회장이라는 현장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 현장 중심의 친서민·시장 친화적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금융권 안팎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 오신 전문성과 소신을 바탕으로 금융위 수장으로서의 의지와 비전을 국민들께 아낌없이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정무위원회에 온 뒤에 업무보고하고 국감을 치르면서 제가 파악한 금융위의 정책적 문제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보증 지원에 있어서 금융위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금융기술적 지원 및 평가 시스템 등의 제도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느꼈고요.

둘째는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배려계층, 즉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금융 지원과 창업 지원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의견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문화콘텐츠 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는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펀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다양하게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을 통한 지원 방안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 방안,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겠고요.

말씀하신 사회배려계층이라고 하면 취약자라든가 국가유공자분들도 되시겠지요. 이런 분들을 위한 몇 가지 금융상품이 있거나 혹은 우대금리 적용 등 조건을 좋게 하는 그런 지원책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문화콘텐츠 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조업이 한 7 수준인데 문화콘텐츠 경우는 한 1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잘 납득을 못 하시고 이해를 못 하시는 점이 있는데, 문화콘텐츠 산업이 자동차 산업의 약 2배가량이 되고요 또 반도체 사업의 2.4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래 성장 산업이고요 대한민국의 성장을 선도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문화콘텐츠 기업의 90% 이상이 텐·텐·텐 구조라는 그걸로 지금 자본금 10억, 매출 10억, 종업원 10인 이하 이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받들어서 말씀 올렸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민간투자자들도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종합지원 체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지금 세계 최대의 소비국가인 중국에서도 여기다가 혁신적인 금융지원 조치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생각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또 문화콘텐츠 사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제도를 또한 대폭 개선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또 대한민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금융위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피셔서 좋은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8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

○김을동 위원 104주년 되는 세계 여성의 날이자 서른한 번째 한국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을동 위원 이 날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기념일인데요. 여성의 역량은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여성 인재 양성이라는 기치하에 능력 있는 여성들을 공직 주요 요직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여성인력 비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사실은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4.4% 된다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김을동 위원 낮은 숫자입니다. 공공기관 여성임원이 116명 정도 되는데 단 3명이고 2.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평균이 5.9%인데 이렇게 금융위는 현저하게 낮은 수치로 돼 있습니다. 올해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여성의 금융권 진출이 좀 상대적으로 늦었고 또 금융권 내부에서도 뭔가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실제로 신규 직원을 받아 보니까 이제 여성의 비율이 정말 대단히 높은 숫자이고, 중간 간부층까지 그렇게 들어왔던 여성 인력들이 차근차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봐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여성인들이 금융회사의 경영인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서도 그러한 데 혹여나 제약이 있으면 그런 제약은 찾아내서 반드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정부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7년까지 9.6%까지 올린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여성 임원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우리 내정자, 제가 정무위원장 할 때 국무조정실장으로 계셨는데 그때 보니까 아주 유능하시고 해서 바로 금융위원장 가실 줄 알았는데 한 단계 거쳐서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금융위원장 한 단계 거쳐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실물경제가, 제조업이 지금 아주 난항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산업이라도 좀 제대로 육성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내정자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융위원회에서처럼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임종룡 내정자는 제가 보니 강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은행 매각을 그때 공적자금 회수를 하겠다 하는 그 일념하에, 그때 당시 신제윤 위원장 '내 직을 걸고 우리은행 매각을 완수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걸 제대로 못 해서 금융위원장을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상황이.

공적자금 회수한다고 우리은행 온 팔다리 다 잘라 가지고 다 이렇게 자잘하게 흩어 버리고 제일 큰 몸통은 매각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2007년도 내가 보니까 5% 예보 지분을 팔 때 주당 블록 매각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5000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9240원이에요. 지금 이런 식에 이렇게, 우리은행 주식 매각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매각을 한다고 특소세 6500억 감면시킨다고 온 기재위에서 난리쳐 가지고 해 가지고 말이에요, 결국 이것 실패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잘하고 있는 우리 국책은행을 좀 이렇게 묶어 가지고, IB 자본시장법 그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애원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더니 우리나라 IB 키운 것 뭐 있어요?

우리은행 이렇게 매각하지 말고, 팔다리 다 잘라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누더기 만들지 말고 좀 우리 정부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IB 국책은행으로 말이지 선도적으로 해외 진출하는 그런 리딩 케이스를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말이야.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민영화 안 시킨다 해 가지고 그 분리시키는 데 예산을 몇 조나 써 놓고는 지금 다시 넣어 놓고, 지금 정책금융공사·산은 기능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능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우리나라 민간 금융기관들이 해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보면 전부 우리 해외 나간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내 금융산업이 또 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리딩 케이스로서의 우리은행을 해외에 내보내는 IB로 육성하고 정책금융공사를 앞장세워서 우리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은행 문제하고 정책금융공사 대안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먼저 우리은행 문제는, 제 생각은 우리 은행은 매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1년부터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은행이 상업금융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이것은 신속히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주가가…… 예보가 인수할 때 얼마에 인수했어요? 지금 그렇게 싼 주가에 매각을 하면, 일반 민간회사가 그렇게 하면 사장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뭐……

○김정훈 위원 비싸게 사서 싼 줄 빤하게 알면서 매각을 한다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매각방식이 됩니까, 그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공적자금 회수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법상 정해진……

○김정훈 위원 아니, 너무 공적자금……

이걸 보세요. 공적자금 회수가 중요하냐,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걸 좀 제대로 묶어 가지고 IB로 해서 내보는 게 국가에 득이냐? 물론 공적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그러면 매각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매각도 제대로 못 하고 누더기는 누더기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 민영 금융기관인지 국립 금융기관인지도 모르게 말이지 애매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예요, 지금. 이런 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동안 여러 차례, 네 차례에 걸친 우리은행의 매각방안에 대한 추진과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 우리은행 관련해 가지고는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좀 공론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방안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은행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만 원대 가던 주가가 9000원대 갈 정도로 우리은행의 가치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가치를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위원 예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민간이 인수해 가지고 목숨 걸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가치를 높여도 될똥 말똥인데 우리 국립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뭐가 아쉽다고 주가 높인다고 그걸 하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 노력이 결코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훈 위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그 방안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아직 후보자의 입장에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되었던 상황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방안을 두고 이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가 민영화의 중점을 어느 포인트에다가 둘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논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시간은 다 돼 가고……

오늘도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내정자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세요.

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건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듣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을 하시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거 한다는 게. 론스타처럼 그런 형태도 안 내고 좋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면서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방안도 찾아야 되고 정책금융공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뭔지를 찾아서 좀 알려 주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금융위원장이나 그런 마인드로 우리 임종룡 후보가 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도 내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는 말씀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님!

○민병두 위원 국무조정실장 때 정무위에서 봤고 또 새 정부 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번 같이 보고 논의하면서 공직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자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결점이 드러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전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 후보자는 그 정도는 아니신가 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마찬가지 무거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지금 우리 경제가 일본 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이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런 주장이 있

고 나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위원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무엇보다 경제가 구조적인 활력을 잃고 있다라는 게 걱정이 됩니다. 구조개혁을 통해서 이 저성장기조를 빨리 탈피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침체가 굉장히 오래 되면 오래될수록 또 디플레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를 빨리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병두 위원 그래서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체제로 가고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국제경제의 시각이지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든지 SOC 투자한다든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런 식으로 20년을 대처하다가 결국은 장기불황에 왔다, 그런데 지금 일본 식 장기불황의 초입에 와 있다라는 우리 다수의 지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일본 식의 대처방안을 답습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또 있어요.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는 문제가 어디 있고 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일본 식의 대응하고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조 개혁을 위한……

○민병두 위원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일본 식의 대처 방안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6개월 지나면서 보니까 가계부채 면에서도 그렇고 경기활성화 면에서도 그렇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하는 지적을 받고 결국 최경환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의 인상 이런 부분은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 부분은 최 부총리가 어떤 소득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계속 처음부터 주장을 해 왔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전환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 일본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가진 가장 큰 소명은 금융 개혁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민병두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자꾸 묻느냐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본질에 유의하고 지켜보겠다, 첫째는 관계부처, 기재부하고 또 한국은행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희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대응을 하겠다 하는……

○민병두 위원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민병두 위원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두 번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과연 저렇게 생각이 같다고 한다면 최경환 노믹스 이미 비판받고 있고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그래서 유기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금융기관의 수장으로서, 금융기관의 수장이 경기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수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최경환 노믹스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적 시각도 없다고 한다면 관계부처 기관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 기관별로 가질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각기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의 간극을 빨리 없애고 같은 합의에 의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금융위가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병두 위원 물론 그렇지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일정한 정도 상대적 독립성을 견지하고 하는 거와 또 금융위원회와 기재부가 서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시각을 갖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유기적 협력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다음 두 번째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인데 지금 2011년 이후에 정부가 다섯 번째,

새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 지금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다섯 번 했던 대책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후보자가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 새로운지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대응책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이제 별건으로 자본시장법에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위해서 증권회사의 투자자 예탁금을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보험료까지 내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게 중복 납부라고 하는 지적이 많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런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특히 지금 증권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연간 250억 원, 10년간 2500억 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증권금융의 투자자 예탁금 같은 경우는 100% 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증권금융이 뭐 파산할 가능성도 없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증권금융에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 투자자 예탁금 중에, 대개 완전히 강제로 별도 예치하고 있는 것이 86.2%고 나머지 한 5조, 4조는 강제로 별도 예치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금자보호제도라는 것은 물론 부보를 하는 목적이 보장을 한다는 목적에서의 부담을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전체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에 따른 혜택을 금융사들이 골고루 보고 있으니까 그 혜택에 대한 부담을 해 달라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 실제로 2000년 이후 비예금 수취기관에 예금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없지요? 저축은행이나 신협·종금사 같은 경우는 지급 사례가 있지만 증권사에 대해서는,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에 관련돼서는 지급된 사례가 전혀 없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탁금에 대해서는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민병두 위원 없고, 그다음에 목표금액도 이미 다 달성을 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민병두 위원 그래서 이제는 한번 좀 분리해서 제도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강제 예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미 안전하게 되어 있고 목표도 달성되어 있고 과거 십 몇 년을 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현실 업계의 어떤 요구를 좀 반영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민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북구갑 출신이신 강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위원 강기정 위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기정 위원 가계부채에 대해서, 오전에 박병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는 토지·상가·제2금융권의 455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 간의 시각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총리 및 한은과 협의체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로 상환능력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지금 신용대출 문제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더 큰 문제다, 신용대출은 만약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장을 찢어 불태워 없애면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다, 이

렇게 이야기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오히려 비주택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주택경기가 워낙 침체되다 보니까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DTI나 LTV,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완화해 준 것입니다마는 나머지 비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흐름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강기정 위원 지금 그 말씀은 그러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거라는 전제에서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지난 8월 규제완화, LTV·DTI 완화, 규제완화 조치 이후에 주택담보대출이 급격화되고 이것이 가계부채를 급증시켰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한 40조 정도 늘어났는데요, 증가 속도는 좀 빨랐지요.

○강기정 위원 그런데 그 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에 쓰이지 않고 한 50% 이상이 주택담보 외의 생계비나 이런 데 쓰였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그것은 조금 다른 수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강기정 위원 아니, 제가 무슨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고 한 것인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주택 구입에 쓰인 수치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즉 소위 말해서 생산적 목적으로 쓰인 것이 대개 한 80%쯤은 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기정 위원 거기서 그걸 여쭤 보고 싶은데, 생산적인 곳에 쓰였다, 그걸 좀 증명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러니까 물론 DTI나 LTV를 완화시킨 것 자체가 주택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우리가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목적이니까 주택 구입에 쓴 것은 당연히 생산적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기존 대출금을, 즉 고금리 대출금을 좀 갚았거든요. 많이 낮췄다는 것은 금융비용을 그만큼 낮췄으니까 가계부채의 건전성, 즉 가계의 건전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강기정 위원 그것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어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월별 시중은행 자금용도별 가계대출 현황을 보고 그중에 주택 구입 비용보다 주택 구입 외 비용이 50%를 넘어 섰다, 주택 구입 외 비용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기차입금 상환도 있고 생계자금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생산적인 곳으로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이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지금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지금 만들기로 한 겁니까, 정부에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강기정 위원 아니, 정부에서 가계부채 관리전담 협의체를 만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요, 위원님 요구자료에 답변을 드리면서 제 생각을 전해 드린……

○강기정 위원 그러면 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는 일단 관계되는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위,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분석을 하고 이것을 같이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응방안이, 금융위 대응방안에 대해서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공감대하에서 이루어져야 대책이 효과를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기정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LTV·DTI 문제도 작년 8월 규제완화 전에는 금융위에서는 완강하게 그것은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흘렀던 그 원인은 뭐였습니까? 즉 지금 대책기구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금융위원장의 소신이나 이런 것이 청와대에 의해서 꺾인 겁니까?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제가 그 당

시에 금융위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전임 위원장이 소신을 바꿨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에서……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가계부채는 어떤 미시적인 그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부분적인……

○강기정 위원 부분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계소득이 늘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습니다.

○강기정 위원 우리 야당에서 얘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을 꾀해야 된다, 이런 방향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당연히 동의합니다.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문제는 금융사에 대한 관리로만 해결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결국 자산 사이드, 즉 소득이 증대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그런데 지금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 8월 취임한 이후에 배당소득, 환류소득 등등 가계소득을 올리겠다는 법이 효과가 별로다, 이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가계소득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발 좀 내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가계부채가 대외적 어떤 변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지요.

○강기정 위원 그런 점에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최경환 부총리부터 유승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전부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한은에 주문하고 있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분들의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한……

○강기정 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요?

○강기정 위원 예.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금리는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잘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기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통위에서 현명하게 판단하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데 어쨌든 경제를 살리는 일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힘을 한꺼번에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합치가 될 때 우리가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기정 위원 좋습니다. 제발 역대 위원장님처럼 그 중심을 딱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피아·모피아·정피아, 많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지난번 신제윤 위원장님도 "제가 제청권자로서 제청권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 또 좋은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오전 여러 질의에 잘하시겠다, 제가 누구냐, 나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문회장, 대국민선언 내지는 좀 무슨 보완방안이 없습니까? 왜 자꾸 개인 의지와 무관하게 청와대의 압력, 또 이런 것 때문에 소신이 꺾이잖아요. 그냥 믿어 달라 말고 좀 해 보십시오. 뭘 할 겁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난감한데요. 말씀 올렸듯이 제가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 소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강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위원입니다.

임 후보님, 금융전문가로서 본업으로, 제자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대가 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한때 또 한솥밥을 먹었던 입장에서 잘 지켜봤는데 뛰어난 실력과 또 경륜과 덕목,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잘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금 국내금융 쪽을 주로 하고 있고 정책과 감독을 하고 있는데 국제금융은 기재부에서 주로 하고 또 다른 산업정책은 다른 부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을 바라볼 때

금융은 금융만으로 볼 수 없고 실물과 양 축의 하나로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정책 또한 소위 정책조합으로, 폴리시 믹스(policy mix)라 해 가지고 같이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와 같은 점에서 봤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가계부채의 문제 같은 것 또한 금융으로만 해서 이게 풀어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이 창출되어서 상환능력을 높여 가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것 또한 경기에 취약한 자영업의 구조가 많은 우리의 이 구조를 서서히 좀 비중을 약화시켜 가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산업 구조조정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정책 등과 함께 같이 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박대동 위원 금융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금융의 핵심은 신뢰와 믿음,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금융이야말로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박대동 위원 경제는 심리고 그 심리를 버텨 주는 기둥은 곧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 주시되 그에 합당한 정책을 꼭 좀 펴 주시는 위원장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소신과 그 철학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물러날 확신과 신념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런 각오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현안은 지금 변화와 혁신입니다. 이것은 곧 자율과 책임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박대동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2014년, 저기에도 있습니다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2014년도에 각국의 경쟁력을 비교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에 26위인데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80위입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122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더 뱅커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94개국 중에, 그러니까 1000대 은행을 보유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83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금융의 위상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낡은 규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대동 위원 후보님께서 내정 전에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금융 규제는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그야말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점을 아마 강조하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변함이 없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금융에 관련한 규제의 완화와 또 우리가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대외 리스크를 부담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한 리스크를 막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 가는 규제완화와 강화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된 2개의 목표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화의 문제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규제 전체를 놓고 우리가 보다 정교화하고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이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규제가 명시적으로 되지 않은 규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두지시나 행정지도 이런 명목의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바깥으로 블루오션을 찾아서 나가야 될 것이고 이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가야 할 절체절명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시절에 반드시 그와 관련된 청사진을 좀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지난번 2월에 법원이 금년 상반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된 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좀 잠정 종결시켜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로서 상반기까지는 제한적으로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제3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환은행이 여러 가지 사태가 장기화되고 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런 것을 당국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을 이대로 두면 괜찮을지 하는 우려 또한 뜻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치 배가 출범을 해서 목적지를 항해하는데 출범할 때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바닥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조금 세게 들어옵니다. 그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하나·외환은행 문제에 관해선 아까 답변드렸듯이 그 자세에 변함이 없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박대동 위원 예, 제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노사 간에 진지하게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대동 위원 말씀 잘라서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말씀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박대동 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일 잘 아는 것은 우선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그 외 외부에서 바라보는 전문가가 잘 압니다. 제3자, 비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야, 그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노사 간의 합의는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건이 나빠지고 어려워진 상황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종합적으로 위원장님의 소신과 앞으로의 계획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앞서 말씀 올렸듯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건은 노사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반 은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이 시스템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이 경험이, 결국은 노조도 혹은 사용자 측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조직의 발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일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만 가진다면 합의를 못 이뤄 낼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되도록 금융위도 지켜보고 필요한 역할도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의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새누리당의 신동우입니다.

저는 오늘 임 후보자님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위원님들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허망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요 도덕성 문제, 쟁점 중의 하나가 아파트를 사실 때의 다운계약서 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탈세를 했더라면 후보자를 고발하고 벌금을 가하고 추징을 하고 그다음에 공직의 진출을 막아야지요.

그런데 과거에 이 논의에 휘말렸던 후보자들이 공직에 진출한 경우도 많고 추징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처벌받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2006년도 이전에 우리 지방세법의 취득세를 징구하는 방법을 보면 말이지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그 다음 조항에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우리는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신고 가액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때는 그것은 인정 못 한다, 그때는 우리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게 취득세를 둘러싼 지방세법의 규정입

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 이전에는 아마 아파트 산 사람은 백이면 백 사람 이 규정에 따라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것은 불법 아니냐, 위법 아니냐?' 행자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시가표준액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의 관행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참 허망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논의한다면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 생산적으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마나한 얘기를 자꾸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06년도 이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도 이렇게 인정을 했고, 그래서 말이지요…… 저 옛날에 서울시 재무국장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세무당국에서는 세율을 높였습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5.8%, 5% 넘었어요.

3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보시기에 적절한 취득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당국도 그걸 알고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낮춰 놓고 세율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6년도에 제도를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안 하면 처벌받는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세율을 낮췄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바꿔 놓고 세율을 높였더라면 이게 정상거래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제도가 이렇게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저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 임 후보자는 뭐하러 이 가시밭길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거기 계시면 봉급도 더 많고 말이지.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는 딱한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답답하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임 후보자 온 것은 운명입니다. 이 자리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짚으면 안 한다고 다들 팽개치니까. 이게 현재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얘기 못 해도 다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걸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동안에 국가가 허용했던, 우리 후보자께 주었던 이 기회와 경력을 활용하셔서 꼭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신동우 위원 저는 말이지요 나갔다 오신 게 너무너무 잘됐어요. 매일 심판만 보셨잖아요. 선수로 뛰어 보니까 웃기는 규정이 많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현장……

○신동우 위원 가셔서 느낄 때 '야,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우선 피부로 느낀 것 하나만 대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현장에 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저도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있어 봤습니다마는 '아, 현장에 기초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허망하구나' 또 혹은 '갖은 비용만 다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도한 혹은……

○신동우 위원 아니, 총론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만 예를 드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 정리 비율을 언제까지 맞춰라, NPL 비율을 언제까지 유지를 해라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사실은 금융회사가 건전성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열심히 스스로 챙깁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무리하게 그 인근에 가면, 그 시점에 가면 무리하게 자산을 매각하거나 혹은 오히려 은행 여신을 내려 가지고 비율을 맞추는 이런 편법들이 동원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신동우 위원 좋은 예를 들으셨어요.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는 과정에 앞으로 위원장으로 되시면 내가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를 죽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신동우 위원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겠다……

자, 그러면 총론으로 목표치는 좋지만 어떻게 규제를 바꾸어야 자율과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정도 해 주셔야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규제를 전부 한번 카테고라이즈(categorize)를 해 보겠습니다. 분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이나 혹은 과도한 중복적인 건전성 규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소비자나 혹은 시장질서에 관한 사항들은 이걸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금융당국이 코치의 역할을 하지 말고 심판의 기능을 하라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동우 위원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원칙을 놓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신동우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괜히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해 가지고 내가 물어볼 걸 못 했는데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신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신동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우 위원님의 말씀이 일견 일리는 있는데, 조정실장·농협지주회장 할 때의 말은, 그런 논리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원장이라는 것은 금융을 다루는 정책을, 법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독·감시하는 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자리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런 자리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세금탈루 이 3종 세트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청문회 통과하고 하는 것들은 청문회 위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이라면 집이 한 채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더욱 심각한 게 있어요. 저축은행 사태, 동양증권 CP 사기발행, 대부업 사금고화 이런 것들이 예보 공동조사, 부실대출의 징후가 계속 옐로우 경고등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김종창 금감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런 분들이 묵살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알고 있지요? 이런 일말의 사태를 알고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분들이 묵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왕차관이지요—측근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MB정부 실세들이 설립을 주도해서 한경협 설립을, 만들었지요, 위원장?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한경협이라고 하면……

○이상직 위원 한국경제교육협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경제교육협회……

○이상직 위원 위원장이 만들었지요? 조정실장 할 때 이것 관련 법규를 만들었지요? 그것을 만들어서 지원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경제교육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원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지금 기재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36억 원 횡령 사실이 드러나 지금 경찰 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 이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설립 시 2000만 원~1억 정도 기본재산을 요구하는데 한경협은 설립 당시 자본금이 0원이었고, 그리고 정관에 기재부·교육부·지경부·금융위 등 6개 중앙부처 1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비영리단체 정관에 이런 걸 못 박았어요. 국무총리실장도 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상직 위원 여러 사단법인, 정부기관 사단법인 봤을 때 이렇게 1급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간 것 봤어요? 정관에 명시된 것 봤어요? 확인했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띄어 있는 돈이, 5년간 270억이라는 돈을 줬어요. 특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36억 원 횡령사실이 났고, 그런데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했더니 저런 교차로니 벼룩시장 하는 데 어린이용·청소년 경제교육지 만든다고 썼다고 했던데 맞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경제교육을 위해서, 즉 자라나는 세대에 경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KDI나 한국은행도 경제교육을 시키고, KDI는 1인당 9만 원의 경제교육비가 들어간다 해서 그 수주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걸 묵살하고 1인당 13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데 140배의 특혜를 주면서 새로, 그것도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만들고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한경협 설립을 해 가지고 시행령 되자마자 돈이 나갑니까, 그것도 수의계약 식으로? 이것 누가 시켰어요, 이것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경제교육을 좀 확산해서 우리 자라는 세대에게……

○이상직 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경제교육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인데, 만일 지금 얘기하듯이……

○이상직 위원 아니, 잠깐 들어 봐요. 위원장님, 끝나고 이야기해요. 들어봐요.

경제교육 취지는 저는 반대 안 합니다. KDI도 있고 한국은행도 경제를 하고 한국경제, 매경부터 경제지도 있고 이런 등등, 또 일간지도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조·중·동 등 일간지 경제교육 다 하지요? 경제면이 다 있어요. KDI 보고서에 이런 데 아웃소싱하면 9만 원인데 뭔 130만 원씩이나 드는, 140배 특혜 되는 데에 일감을 단독으로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데 뭘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경제교육의 필요성은 당연히 오케이. 왜 거기에 줬느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요? 위의 지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하신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수의계약을 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직 위원 KDI에 줄 수 있는데 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줬냐 이거지요, 새로 만든 한경협.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한경협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이상직 위원 그런 목적으로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누가 시켰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수의계약을 제가 했다는 얘깁니까?

○이상직 위원 한경협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한경협 만든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상직 위원 그러면 만들어지자마자 돈을 누가 줬어요? 줬잖아요, 위원장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나간 것이겠지요.

○이상직 위원 아니, 없었던 것을 반영해서 준 것 아니에요, 법도 만들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없었던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아, 법은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회에 요청을 했었고 그때 정무위에서 심사를 받아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KDI에다 주면 9만 원인데 130만 원 하는 돈을 집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고 집행을 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그 집행을 제가 했습니까?

○이상직 위원 실장으로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예산을 반영하는 것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그 당시에 근무할 때 했던 것 아니에요, 실장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실장일 때 틀림없이 협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협회를 설립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이상직 위원 예산 반영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 말만 하시면 되지. 뭐 제가 그것을, 경제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경제교육 잘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고 특혜를 줘 가면서 했느냐 이 건데…… 이게 본인이 그냥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법을?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필요해서, 그때 경제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위원장이 되면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필요에 의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를 고쳐 가지고 1인당 9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없던 단체를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을 공포하자마

자, 없었던 단체가 등록하자마자 돈이 일방적으로 140배나 비싼 데로 나가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논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설명은 약하고요, 어쨌든 운영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겠지요.

○이상직 위원 그리고 기술금융에 한 가지 묻겠어요. 정책질의하겠습니다.

기술금융 하는 게 창조경제 때문에 기술금융으로 가는 겁니까? 창조경제의 일환이에요, 활성화의 일환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창조경제의 하나의 금융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직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지금 기술금융이 어떻게 되냐 하면 갑자기 기술금융을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니까 무늬만 기술한테 나가요.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창조경제, 기술금융의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지요, 좋은 일자리?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이상직 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합니까? '9988' 아시지요? 99% 중소기업 88% 일자리, 중소기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금융도 좋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성장하는 중소기업 이런 데의 일자리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회사에 골고루 가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중은행들 아무리, 아까 시장을 강조했잖아요? 금융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시중은행들한테 프라이머리 CBO를 정부가 보증을 해 줘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증권사나 자산공사 통해 가지고 시장에 기술금융, 성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죽 나갑니다. 이것을 안 하시고 기술만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고 시장에서, 농협에 있어서 알겠지만 시장에서 헷갈려 가지고 기술을 무늬로 바꿔요. 이런 현장을 잘 아시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주신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아무튼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벤처기업과 기술금융과 성장기업과 중소기업,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회사한테 나가는 것도 기술금융의 포괄적인 의미에 있다 이런 것을 넣어 줘야 돼요, 이름을 일자리펀드로 하든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상직 위원 그것을 안 하니까 시중은행에서 헷갈려하고 산업은행하고 정책금융공사만 지금 죽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하면 금리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김정훈 위원님께서 우리은행과 관련해서 정책금융공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정책금융공사는 일단 산업은행하고 지금 합쳐졌고요, 그 기능이 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일반 상업금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온랜딩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살려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정우택 이상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 카드 수수료에 관한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밴 시장이 그동안 많은 문제였었던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로 인해서 여전법을 통과시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거 관련된 것 중에 IC 단말기 전환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유의동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밴사가 그 IC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방안이 추

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지금 아마 협회하고 카드사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내부 논의 중에 기존의 밴사의 라인을 이용해서 IC 단말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지,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논의 중인데요 기존의 밴사들은 그런 주장을 하리라고 추정은 됩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존 밴사 망을 그대로 이용해서 IC 단말기를 보급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제가 아주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안을 채택할지, 하여간 그 관계인들이 한번 협의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협의를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영세 가맹점들이 IC 단말기를 효율적으로 잘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이,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으로 또 해야 되겠지요. 이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해서 협의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니까 여전법 개정을 통해서 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고 밴사들이 기존에 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문제점을 야기시켰던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인식한 결과로 우리가 여전법을 개정을 한 거니까 IC 단말기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염두에 두셔서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 과정을 잘 지켜보고 필요하면 저희 의견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소상공인 전용 공공 밴 도입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궁극적으로 공공 밴이라는 게 영세 가맹점들이 수수료를 좀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취지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과연 공공 밴을 도입하면 얼마나 여지가 있겠는지 그리고 기존 밴사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넘어갈지 이런 관련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유의동 위원 취지는 이해하시는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걸려 있는 문제들, 그 효과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겠지요.

○유의동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쭙고 있는 것은 취지만 이해하시는 건지, 아니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공 밴 도입에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실 건지 그것을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상황만 이해하느냐 못 하느냐를 여쭙는 건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께 지금 제가 '그걸 도입하겠습니다'라고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그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는 제가 만약에 직을 맡으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 답변입니다.

○유의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보고받았습니다.

○유의동 위원 지금 이 진흥원 출범과 함께 현재 분산돼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지원요건 준비 또 관리체계의 통합 이런 기타 등등 대출프로그램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를 하기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분산돼 있던 서민지원 제도를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통합적으로 관리해 보자 그런 취지로 아마 법률안이 추진, 정부 개정안이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통합거점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거점센터가 있고요. 제가 얘기 듣기에는 아마 한 100여 개 정도 지역에 이렇게 센터를 둬 가지고, 거점센터도 있고 또 센터도 있고 해 가지고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그러면 100여 곳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어떻게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위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의동 위원 아, 그러면 출발이 100개고 계속 확대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앞으로 시장수요나 얼마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 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의동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유 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금융수요를 찾아서 서울 아니라 외국이라도 쫓아가겠지만 이런 서민금융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방에서 그 인근에 거점센터가 있는 도시로 찾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00개인데 100개를 더 늘리겠다라는 생각보다도 기존에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다른 곳들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접근 가능성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여러 군데 다니지 않도록 하는 일, 이게 아마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정신에 맞추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 마치셨습니까,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유의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만안 출신 이종걸 위원입니다.

오랜 공직 생활 끝에 잠시 사기업에 계셨다가 후보자가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감사합니다.

○이종걸 위원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차관으로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때, 오늘 존경하는 이상직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야당 위원들이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때 법 제정에……

○이종걸 위원 후보자가 차관 시절에 법도 만들고 사단법인도 만들고 협회도 만들어서 또 고문도 위촉하고 또 거기 1대 2대까지 협회장인가요 해서 예산 죽 총괄, 총 지급된 액수가 2013년까지 한 271억인데 그건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기획조정실장일 때 법 제정을 추진했고요 그때 필요한 예산도 국회에서 받았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당에서는. 정권 실세들이 만든 협회에 경제교육을 맡기면서 돈을 퍼 주었고 그 협회의 고문인 사람들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사무총장 박영준 차관 그다음에 그 비서관 정인철, 측근인 박상득 이런 분들이 고문이고 실세의,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형식적인 협회 이사들은 공정위의 국장, 교과부의 국장, 그다음에 금융위 정지원 국장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후보자께서는 차관으로 이것을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셨잖아요, 장관도 공석이었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주관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종걸 위원 그때 협회장은 초대 황영기, 지금 금투협회장으로 다시 들어오신 분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종걸 위원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T 회장 하다가 그만두신 이석채 KT 회장이 2대예요. 기억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이후에 아마 그 분을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 국감에 답변한 걸 기억하시지요? 제가 읽지 않아도, 경제교육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교육지원법을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고 민간 주도의 경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구심체로서 한국경제교육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해 주고 교육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아하경제신문 만들고 그랬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이상직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주 주고 그런 것들이 부당하고,

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270억 중에서 수십억을 횡령해 가지고 구속도 되고 또 징계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 후보자께서는 아주 철저한 신념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종걸 위원 지금도 이게 필요했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종걸 위원 그런데 과정에서 이게 무슨 횡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도에 포기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운용을 그렇게 하고 불법적인 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운용한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이종걸 위원 운용의 책임을 진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도 되고 물러나고 징계도 받았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그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입장과 그 기초를 했던 후보자께서는 지금 이렇게 장관으로 다시 복귀하시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든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었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협회를 만든 것은 정말 경제교육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꼬리 자르기 수준의 변명에 일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법을 만들 때 그러면 그 법의 추상성에 의해서, 누가 그런 것들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죽 얘기했잖아요. 협회 고문 실세 이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아하경제라는 신문, 비정상적으로 만든 그 신문…… 그 신문 내용을 보면 벌써 이미 후보자가 예상했건 안 했건 간에 이미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몰랐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만약 그렇게 운용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법에 의해서 엄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어찌 보면 후보자가 책임에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이종걸 위원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관으로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농협지주회사 회장으로 가기 전에 연세대학교 석좌교수를 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석좌교수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다 아시지요? 이건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학문 발전에 직접 공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후보자께서 학문 발전에 지대한 발전을, 영향을 미치거나 공헌을 한 적 있어요? 학술상을 받은 적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석좌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느냐 하면, 경제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경제대학원에……

○이종걸 위원 아니야, 아니야. 역할이 아니라 보세요. 보니까, 물론 그런데, 석좌교수의 자격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비전임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그래 가지고 딱 정확히 돼 있습니다. 1항 1호 2호밖에 없어요. 이거는 읽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법 집행하고 법규정 만들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이 이렇게 퇴직하자마자 법을 위반하는 자리에 가시면 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30년 동안 쌓은 제 경제 현장에서의 전문성이……

○이종걸 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보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전문성이 그 학문적인……

○이종걸 위원 '전문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와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연구업적에 탁월하여 학술상을 수상하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학술적 인정을 받은 자', 기타 그에 준하는 학술적 인정을 받은 자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제가 굳이 그 규정을 읽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여기 '학교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보면요.

○이종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망 있는 자예요.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어떤 영향을 끼쳤어요, 학문 발전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1항에 보면요 석좌교수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종걸 위원 글쎄, 이게 지금 다 '학문' '학문'인데 우리 후보자께서 학문 발전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그 항에 속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뒤에 항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이종걸 위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1호 2호밖에 없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학교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명망 있는 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망 있는 자'지요.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하고 저하고 보고 있는 규정이 아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게 2013년 3월 11일 날 개정됐지만……

아무튼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2호 석좌교수 할 때, 지금 아주 명백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이스정보통신에서 2013년 5월 25일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강의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523만 원 받으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1회 강의하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1회 강의였습니다.

○이종걸 위원 몇 시간 강의하셨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2시간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2시간 강의하시고 520만 원 받는 것이 타당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그때 연대 석좌교수는 민간인 신분이었고요. 저도 사전에 강의료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갔습니다. 나중에 받아 보니까 그 액수가 와서……

○이종걸 위원 그게 변명이 됩니까, 그게? 나중에 그러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위원님, 제가 변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정확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통상 주는 회사의 관행대로 준 겁니까, 아니면 저라고 해서 더 준 겁니까?' 했더니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관행대로 다른 케이스에 맞춰서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종걸 위원 후보자님, 지금 인사청문회는 국민들한테,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지금 말씀 너무 잘못하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종걸 위원 30년간 공직과 차관과 그다음에 모교의 석좌교수까지 하셨지만 2시간 강의하셔 가지고 기타소득 520만 원 받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리한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맞춰서 지금 생각해 보면 공직을 그만둔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렇게 한 것이 현명했느냐 하는 데 대한 반성은 제가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자 하신 취지를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우택 이종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후보자께 간단히 한 가지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금융인 신년회 할 때 '우리 금년을 금융산업 발전의 원년의 해로 한번 삼아 보자' 이런 얘기를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들었습니다, 저도.

○위원장 정우택 그것은 우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막힌 것을 뚫어 보고 구부러진 것을 좀 펴 보자, 그런 저해요인을 이번에 금년에 과감히 좀 제거함으로써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좀 가벼운 몸을 갖고 뛰어 보자 이런 기대에서 제가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청문회를 하는 이후에 가장 큰,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번에 금융위원장을 교체하게 되는데 우리 임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국민들한테 가장, 이것만큼은 기대했으면 좋겠다,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우리 후보자로서 '이것만큼은 정말 국민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일 텐데, 뭐 여러 가지 아까 모두발언하셨는데, 그런데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위원장이 돼서 확실하게 구부러진 것, 막힌 것……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이것만큼은 좀 기대해 주십시오' 하고 자랑…… 자랑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 한 가지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동안 또 필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장 정우택 필드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금융감독 정책 또는 여러 가지 금융에 관한 정책들을 실제로 몸소 느껴 보셨는데, 이제 실제로 감독과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 가셨기 때문에 필드에서 느낄 때 정말 이것은 금융감독이나 금융정책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필드에서 제가 느껴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위원장이 되면 이것만큼은, 필드에서 이런 걸 느꼈는데 금융감독이나 또 금융정책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좀 확실하게 바꿔 놓겠다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씩만 각각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려야 할 것은 역시 금융개혁입니다. 그중에서도 금융규제와 관련한 개혁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금융감독과 정책 중에서 달라져야 될 부분은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이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확실성과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앞으로 금융감독 개혁을 할 때 중요한 제 원칙으로 잡고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좋습니다.

위원장이 되시면 금융개혁에 대해서 제일의 과제로 삼고 추진해 나가신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 일관성 있게 정책을 금융감독 정책을 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우택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우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께서 아침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장 정우택 말씀하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오전 질의 말미에 이종걸 위원님께서 제가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된 근거규정을 인용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달라서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마 실무적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개정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종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규정이 맞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석좌교수는 학문적 업적이 탁월한 인사로 하되 다음 각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2호에 보면 '국가나 사회에 획기적인 기여를 통하여 학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명망 있는 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규정을 잘못 가지고 있어서 인용해서 이종걸 위원님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다만 제가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됐던 것은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저도 모교에 제가 가진 부족하지만 작은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수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오전에 이종걸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자료가 정확한 자료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금융 쪽에, 특히 경제 쪽에서 계속 일을 해 오셨고, 또 NH 지주회사 회장을 하실 때도 제가 듣기는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소통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몇 가지 짚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계에서도 금융위원장 임명장 받기 전에 벌써부터 후보자의 소신과 또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표시하는 데도 있고 또 기재부나 업계로부터 휘둘리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같은 것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아시겠지요, 금융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정부처가 아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정부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게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부처가 아닙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명숙 위원 왜 이렇게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부처가 아니게 만들고, 금융위원회의 설치를 별도의 법률로 정해 놔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것은 금융위원회 업무 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특히 금융위원회는 정책과 더불어 감독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만 소신껏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위 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달라지면 정말 위기를 위기상황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대란이나 금융위기나 또 IMF나 저축은행 사태 등 역사적 경험이 우리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융 발전방향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후보자의 정확한 철학과 소신 그리고 책임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이 그동안 정부 주요 요직에서 하셨던 발언이나 언론 인터뷰 또 서면질의 답변서 이런 것들을 보면 후보자의 금융정책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에 따라 위치에 따라 철학과 소신이 달라진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서……

제가 PPT를 띄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앞에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랑 같은 것이겠지요, 보시고 계신 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면 MB정부에서 추진했던 여기 금산분리 때는, 이때가 기획재정부 정책국장이었는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추구하셨는데 최근의 입장은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정부…… 말하자면 아무런 결실 없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 됐던 것이 4%로 되돌아왔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TV·DTI 정책을 보시면 '가계부채, 현재 속도로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2010년의 기획재정부 차관 당시의 말씀입니다. DTI, LTV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계부채는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규제 합리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MB정부 때 보면요 '가계 대출은 핵폭탄급이다'라는 이유로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관이셨거든요, 기획재정부. 그런데 지금 가계의 빚더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가속도가 급합니다. 5년 전보다 40%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정조사 중인 자원외교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자원외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면질의에 보니까 '총리실 재직 당시에 국무총리실은 자원외교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자원외교의 주무부처였던 지경부를 향해서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의 위원장으로 주재를 하시면서 '지경부가 홍보의 방향을 잘 잡아라. 또 해외자원개발의 핵심은 재원 마련이다. 그리고 이 협의회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 부처와 유관 기관은 긴밀하게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하셨거든요.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자율성에 대해서도 자율에 맡겨야 된다 그랬다가 정부 주도의 금융개혁위를 설치해서 개혁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자원개발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정책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정말 철학과 소신이 있으신 것인지, 책임을 지시고 하실 것인지, 중립성과 독립성을 잘 지키시면서 쓴 소리도 하시면서 방향을 틀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소신 있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금융위원회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은 제가 간직하고 제가 만약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잊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요 정책별로 입장 변화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존에 2008년에 있었던 것은 일부 완화했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있었으면 그때 원칙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LTV하고 DTI 경우에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가계부채에 대해서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고 우리가 관심 있게 다뤄야 될 정책 주제다라는 생각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대책을 가지고서 관리를 적정하게 해 나가겠다. 즉 단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놔두겠다라는 그런 뜻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금융개혁회의나 개혁추진단의 경우에는 제가 금융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 기제 그리고 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 중복규제, 불명확한 지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 개혁회의를 통해서 걷어내서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입장 차이가 있는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외교 문제입니다. 자원외교 당시에 홍보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발언 취지는 뭐였냐 하면 과다하게 자원외교의 성과를 부풀려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실상을 전달해야 한다 하는 요지로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무총리실에 있으면서 자원외교 지원협의회를, 에너지협력외교 지원협의회지요. 그것이 열여덟 차례가 개최됐습니다만 세 번을 제가 주재를 했습니다, 총리실장으로서. 즉 6개월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그 회의는 현안을 보고받고 부처 간에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을 조율하는 회의였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투자를 해라 하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 결정이 있는 회의는 아니었다 하는 부분을 서면답변 자료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즉 분명한 소신을 항상 가지고 유지해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소신과 철학과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변함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명숙 위원 여태까지도 사실상 경제 전문가들,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펀더멘털이 좋다, 문제없다, 괜찮다, 관리가능하다 이런 식의 답변을 계속했지만 FTA가 생겼고 저축은행 사건이 생겼고 다 문제가 그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바로 듣고 그리고 정부에 휘둘리지 말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로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한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새누리당 이운룡 위원입니다.

핀테크 산업을 규제 혁신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 기술금융하고 핀테크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창조경제의 일환이다,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금융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현황은 잘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보도된 것을 한번 제가 보니까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고 또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현재 금융위가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게 금년도 금융위 제1의 주력 업무보고였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런데 현재 후보자께서는 금융위 입장하고 조금 다른 겁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답변한 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해서 해야 한다는 의견, 그렇지 않고 실익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예시했을 뿐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인터넷은행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금 별도의 저희 연구팀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6월 말까지 설립에 관한 금융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행이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운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제1의 업무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 핀테크 산업도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서 금융계와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제입니다.

지금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위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에는 찬성을 좀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금융회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지원 받으면 안 되는 기업까지 정부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KDI 보고서를 한 번 봤더니만요, 부실기업에 대한 공격적인 금융지원이 결국 좀비기업을 양산하고 이게 우리 경기에 각종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KDI의 박사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이운룡 위원 또 실제로 금융위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2009년부터 13년까지 부실징후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43개 기업 중에서 15개 회사가 지금 좀비기업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것 금융위에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또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기준으로 지금 한계기업이 한 3000여 개가 있는데 이 한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익스포저가 무려 거의 86조에 달하고 있다, 이 86조의 대부분은 대출입니다, 대출. 구성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업구조 촉진법을 좀 상시화하겠다는 논의를 지금 금융위가 하고 있지요? 그것 보고 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시화하는 법안하고 현재의 기촉법이 지금 금년도로 한시적으로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운룡 위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일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있습니다.

○이운룡 위원 일부 대상 채권자라든가 채무자 범위 확대문제라든가 또 부실징후기업의 사후점검 규정을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상의 의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률상의 의무로 할 거냐, 몇 가지 지금 일부 재계하고 금융권하고 이론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네 번 개정을 했는데 두 번 정도가 지금 법률적 효력이 상실된 적이 있어요. 이것 빨리, 논의를 빨리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현재도 늦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첫 번째, 중소기업과 관련한 것은 올해만 해도 제가 아는 숫자로는 한 38조 정도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즉 무리한 숫자 불리기에 급급하지 않도록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그리고 은행 건전성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경제라는 것이 항상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기업들이 원활하게 구조조정이 돼서 경제 전체가 활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러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증권과장일 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건이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는 은행 채권만으로도 충분한 구조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한 구성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적인 사항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이것을 검토를 잘해서 이 법안이 계속해서 상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국회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이 고금리라는 빚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역점 추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대학생과 청년들이 빚의 수렁, 고금리에서 영원히 탈출 불가라는 굴레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회에 첫출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사회의 첫출발부터 낙오자가 되는 일이 없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균등한 기회를 주는 사회다 하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자금을 갚을 능력만 있다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 옳다. 설사 은행이 아니어서 부득이 제2금융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30%에 가까운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하는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대학생,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받는 고통도 엄청나게 큰데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조달한 금융비용이 과도해서 겪는 고통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혹시 최근 통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작년 11월 말 현재인데 대학생들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의 액수, 대출금이 얼마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2000억 정도……

○박병석 위원 그렇습니다. 6만 1000명이 2074억을 평균금리 27.7%로 빌리고 있어요. 연이율 30%의 이자를 내고 아르바이트 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청년들이 빚의 수렁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부터 강조를 했더니 우리 금융위와 금감원이 노력을 해서 몇 가지 조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우선 대학생·청년 햇살론을 도입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래서 금리를 4.5%로 내리고

과거에는 300만 원밖에 대출 안 해 주던 것을 갖다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800만 원으로……

○박병석 위원 예, 800만 원으로 늘려 주셨어요. 또 그리고 고금리를 쓰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자율을 5.5% 1000만 원까지는 갚아 주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그런데 빚을 도저히 갚지 못하는 사람은 소위 신용회복을 통해서 과거에 50%까지만 감면해 주던 것을 60%까지 감면해 주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융위나 금감원의 노력을 평가하고 또 저의 노력도 결실을 맺었다는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참 많다.

첫째, 생활비를 800만 원, 대학생의 경우는 장학재단을 포함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적다, 이 800만 원의 폭을 더 넓혀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 아까 금융위원장께서 현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금융위 관계자들을 저희 방에 오시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상품을 만들면서 대학생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봤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측의, 제2금융권의 공급자의 입장은 들었지만 실제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 꼭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첫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비 800만 원의 한도를 더 늘려 줘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준을 좀 완화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에서 3개 이상의 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무조건 대출을 안 해 줘요. 그런데 이것 잘못됐다, 몇 군데에서 빌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를 빌렸느냐 하는 규모가 중요한 것 아니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좀더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카드로써 현금서비스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안 해 줘요. 급하니까 돈 빌리겠다는데 카드 대출 100만 원 했다고 대출을 안 해 준다면 이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이 한 달 이상 걸려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바로 대출해 주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빚의 수렁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내에 작은 TF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두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거기에 접근성이나 원스톱 서비스를 고려해서 한 파트를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센터 담당 창구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리 4.5%짜리 생계자금도 마련해 주고 대출거치기간, 상환기간도 대폭 늘려 주고 한 것은 평가를 하지만 다시 한번 수요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TF팀을 구성해서 만들어 달라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위원장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신 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실제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 이재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금 부채가 많은 청년들을 구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애시당초 이 친구들이 그런 제2금융권에서 굉장히 높은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 자체,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 내용에 보시면 사실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미리 장학재단 그다음에 햇살론 이런 것을 안내하고 취급해라, 그다음에 실제로 자제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간 실적을 보시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고금리로 쓰는 것만큼은 우리가 대체 수단을 만들어 줘서 그쪽으로 활용 가능하고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그러니까 당시 기재부 제1차관이셨지요. 금융위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내용은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서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를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 기억나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런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여튼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노력은 그때도 실제로 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때도 노력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고정금리 상품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고정금리가 당시와 비교해서, 2011년이니까 당시 한 3.25%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기준금리가 훨씬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시에 앞으로 고정금리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출과 관련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던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2%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고정금리로 갈아타신 분들한테 손해가 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래도, 아까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고 앞으로 금리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았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고정금리대출이 지금 한 24%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이 수치상으로는 많이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조금 높았을 때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아니냐 하는 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야 더 낮은 금리, 낮은 금리로 가 주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의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앞으로 지지 않겠다, 그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라는 데 가장 큰 중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번 금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가장 최저금리를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맞춰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고정금리로 갈아타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제 생각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이유는 뭔가 미래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나온 이 정책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서민들이 어떻게 3년 후 고정금리가 지금 마켓 트렌드를 보면 이게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걸 믿고 맡기는 것이 국민이거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정책이 하나 나올 때마다 정부는 굉장히 고심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때는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위원장님이 되신다면 모든 정책을 하나하나 내놓을 때마다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지적해 봤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문 하나 하면 그냥 5분이 쓱 지나가네요.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재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임종룡 후보자님, 오전에 후보자와 관련해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고액 강연료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도덕성의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후보자로서 입장을 국민들께 한번 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기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그리고 태도를 잃지 않고 살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금융위 차원에서요, 관피아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와서 정피아 낙하산 논란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지적이 있었고 특히 KB금융지주의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인물은 제가 이니셜로 표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을 금융위 고위관계자 누가 전달하고 있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정피아·관피아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금융위 고위관계자의 그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적절히 조치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금융기관 인사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더 이상 이런 정피아 낙하산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민간 금융회사는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임용해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유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는 금융위 고위관계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부임하게 되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도 총량관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총량관리 자체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나 혹은 민간의 소비지출……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답변하셨는데요, 이 관리 가능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차원에서 관리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라는 게 주택가격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것이고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담보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금융기관의 리스크로 나타나게 되지요.

지금 최경환 경제팀이 주택경기 부양정책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국민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골병이 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계부채가 지금 소득 4·5분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상태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문제는, 만약에 미국이 출구전략을 써서 현재의 저금리 구조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래서 고금리 구조로, 그러니까 현재의 저금리 구조에서 금리인상 구조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이 4·5분위의 소위 고소득자는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이미 이자부담도 어려운 한계상황에 있는 계층에게는 이게 직격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총량지표상 관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계층의 국민들에게 다 관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관리 가능하지만 서민과 한계계층에게는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 가계부채의 계층별 효과를 따로 분석해서 계층별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소위 서민계층이라든가 한계계층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던 대로 10%대의 서민대출 금융기관을 저축은행을 통해서 육성하라든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돼 있는 것을 상품별로 변경하라든지 또 가계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대책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가계부채 위험성에서 보면 올 상반기 안으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게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안에 가

계부채 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놓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상반기라고 할 것도 없이 제가 부임하면 가계부채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필요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제 관리가……

○김기식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소위 각 계층별로 차등화가 나타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총론이 아니라 각론을 종합한 종합대책을 내놓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계층별 대책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실제 고소득자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그동안 금융위에서 여러 가지 맞춤형 대책도 내놓고 저소득자 문제에 대한 접근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제게 권유하시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 DTI·LTV 관련해서 기재부 차관이었던 2010년도에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적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식 위원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다시 묶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때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0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1.7조 정도 증가하다가 DTI·LTV 규제를 자율화한 뒤에 월평균 2.5조가 증가했습니다.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DTI·LTV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월평균 2.5조가 증가하다가 그 뒤로 4.9조, 즉 DTI·LTV 규제로 그 이후에 가계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달에도 DTI·LTV 규제완화에 대한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윤증현 장관을 포함해서 자율 적용을 종료하는 것은 가계부채 때문이고 잠재적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이것 더 이상 완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DTI·LTV 규제를 다시 정상화했습니다.

후보자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 정우택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기식 위원 그 당시에 DTI·LTV 규제완화 조치를 한시적으로 종료하고 종합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일정 정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DTI·LTV 규제완화 이후의 부채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부채증가 속도를 모니터링해서 상반기 중에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들어가는 문제 그리고 본인도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종합대책을 내놓는 이 두 가지 문제, 총량관리와 종합대책 문제에 대해서 신임 금융위원장이 지금 내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DTI를 그때 풀었다가 다시 원상복구시켰을 때 저도 정책에 관여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저는 DTI나 LTV가 항구불변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든 그 경제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고 그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잘 감안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만 지금은 뭐냐, 그동안 주택경기 침체에 따라서 서민경제가 많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작년 8월 달에 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한꺼번에 항상 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기식 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는 그런 종합대책이나 이후의 총량관리를 검토할 용의가 있

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누리당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 새누리당 김상민입니다.

후보자님,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기도 했는데 핀테크 산업 추진에 관한 후보자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가별, 여러 선진국들의 핀테크 기업 수들이 상당히 격차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핀테크 기업 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정확히 숫자를 기억……

○김상민 위원 미국은 374개인데 한국은 현재 없습니다.

글로벌 벤처기업 소개 사이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한 내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ICT 발전지수가 덴마크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평균 접속 속도 역시 홍콩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IT 강국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이나 대금결제 미이용 이유 중에서 가장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고 그리고 공인인증서 등 안전장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보안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방안과 생각이 뭔지 제가 여쭤 봤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전적 규제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IT 회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등록한 52개의 PG(지급결제대행사)사 중에 80%가 넘는 44개 사가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몰랐습니다.

○김상민 위원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육성의 강화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보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산업을 육성하고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농협에서 재직하셨을 때도 큰 사고를 당해 보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와 같은 반복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눈앞에 보이듯이 훤히 예측이 되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보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핀테크 산업의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책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보안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오히려 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지나치게 저해 요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성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나 케이스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잘 알려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금융보안원도 만들고 금융회사의 보안 투자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안 문제는 핀테크 산업을 다지기 위한 기초로서 인식하고 앞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후보자님, 일단은 이것부터 진행을 하시지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농협에 있을 때도 그것을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도입했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1월 기준으로 80% 넘는 회사가 이 시스템 미구축 상태에 있습니다. 왜 미구축이 됐는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고 근간이 되어야지 여러 규제들을 풀면서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가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위원 그렇지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보안 구축이 선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상민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과 진행된 계획을 본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임명되시고 나서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또 하나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인사 문제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사람의 어떤 업무 역량이 가장 중요한 곳이 금융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 적체 등의 문제도 상당히 있고, 지금 3급 이상 고위직 여성 간부가 몇 명 있는지는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3급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민 위원 예, 여성 간부가 1명도 없습니다. 지금 고위 공무원이 전혀 없고 정원 대비 초과율을 보면 4급은 15.8%, 6급은 6.2%, 7급은 57.1%가 있는데 이런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라든지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여성 인력은 아까 금융회사의 경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이 점차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우리의 중추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걸림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자면, 금융위원회의 전문 금융 자격증 보유자 현황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문제라든지, CPA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감원이나 기타 등등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입니다.

낙하산 인사야말로 금융산업을 후퇴시키는 가장 큰 원흉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후보자께서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특히 지난번에 보면 금융위 고위 당국자, 고위 관료가 직접 낙하산 인사 문제에 개입을 해 가지고 언론에 가서 얘기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그리고 관치라고 하는 것은 관이 그냥 다스리는 것이 관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숨어서 엉뚱한 짓하고 책임 안 지는 것이 관치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전화 한마디로 한다든가 해서 뭐를 지시하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지시에 의한 이행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은 또 책임을 안 지는 이것이 관치의 폐해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외환·하나은행의 조기통합 문제는 단순히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노사정 합의서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금융위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것은 법원의 결정문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최근에 현장에 가까이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은행 혁신성을 평가한다고 그러면서 은행들을 한 줄로 세우는가 하면 기술금융이라는 명분으로 부실대출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막 금융위가 캠페인을 벌이니까 기존 대출자에게서 자금을 회수해서 그것을 기술금융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대출이 나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대형·중형 은행 고려하지 않고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고려하지 않고 아주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까 불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이러한 은행 혁신성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혁신성 평가는 금융회사의 행태를 좀 바꿔 보자, 즉 지나치게 담보 위주의 관행을 좀 바꿔 보자 하는 데서 나온 하나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었고 저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꼈었고……

○김기준 위원 그런 부작용이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 보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금융지주회사 이 제도는 사실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 금융지주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대형화·융합화 이런 금융의 추세를 감안하면 지주회사는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 30대 은행의 25개가 지주회사 형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꼭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에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운영을 분명히 역할 분담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금융지주에 있어서는 저는 서로의 시너지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융합화시키고 하는 그런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준 위원 금융지주회사의 핵심적인 문제는 지주회사 회장이 책임을 안 지는 지시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은행장이 지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구조 여기에서 많이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런 측면에서는 자회사인 은행은, 은행장은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주회사 회장은 인사를 하기는 하지만 전체 경영에 대한 측면이라든가 경영관리 이런 측면만 관여를 해야지 모든 일에 '만기친람'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식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그런 취지입니다.

지주의 역할은 시너지를 일으키고 전체적인 그룹의 전략을 짜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명한 구분만 있다면 저는 지주회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의 감독체계의 문제 중의 하나가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이 일원화되어 있고, 합쳐져 있고 이래서 금융위가요 때로는 산업정책을 들이대고 어떤 때는 감독……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책을 들이대면서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금융산업 전체가 망가졌다 이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금융감독 정책과 금융감독은 현재는 이것이 또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감독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고 감독은 또 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이것을 합치고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은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금융감독 체계에 관한 문제는 저도 오랜동안 여러 가지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지켜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당사자이기도 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문제인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논의 자체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비용과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에 관한 명제가 다 이 문제에 함몰이 되어 버립니다. 마치 블랙홀 같은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금융개혁입니다.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실물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일, 이 일에 일단은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장일단의 문제 이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정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우리가 가진 금융계의 문제점 이것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김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서민금융과 관계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렵고 또 저신용, 중소·영세 상공인 등을 위해서, 우리가 금융소외계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금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태환 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미소금융, 햇살론 뭐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태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 2월 금융위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오히려 지원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이 줄었다 이런 통계자료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도 그것을 준비 과정에서 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 하는 것이 설립 초기에 34만 명 정도를 많이 해 버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준 것이지 전체적인 그 흐름이나 지원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금융위의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환 위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고금리의 대부업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감원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3년도 말에 약 10조 100억 원 정도인데 14년도에는 6월 말까지 10조 8900억으로 대부업 잔액은 오히려 늘고 있다 이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민금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런 점에 대한 지적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든다, 새로운 법률을 또 만든다, 아까 말씀하신 바꿔드림론, 햇살론 이런 체제를 정비한다 하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사실은 정부의 금융정책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순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챙기고 더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서민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 대부업자에게 불법 사채 이런 쓰는 것을 가능한 한 줄여서, 원금 상환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고 이러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태환 위원 그것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정책 지원인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든지 해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고금리 대부업이 주는 현상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 이 서민금융 분야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시고 개선책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또 한 가지 증권사의 금리가, 융자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증권사요?

○김태환 위원 증권사 대출금리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태환 위원 지금 은행은 2011년 이후에 평균금리가, 우리가 저금리 시대로 가다 보니까 1.8포인트 정도 개인대출 금리가 내려왔는데 10대 증권사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나 우리 증권사의 대출금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2014년도 신한금융 경우에 5.64%가 금년 1월에 8.95%가 되어

있습니다. 3.3%나 올려요. 또 현대증권 8.65가 9.31, 대신증권이 8.32%가 9.1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평균 보더라도 7.85%가 8.52%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증권사의 재원조달 구조가 좀 달라진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정확한 원인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전 위원장한테 이것을 지적하고 본인도 그거 문제가 있다,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다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올라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금리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선책이 있고, 이거 개선이 되어 줘야지 오히려 조달금리가 지금 약 2.2% 정도라 하는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증권업의 조달금리가 2.2%인데 7%, 8%, 9%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대출을 해 주더라도 반대매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환이 안 될 때 말이지요? 안전성이나 위험성에서는 오히려 시중금리보다도 증권사가 훨씬 안전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금리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맞지 않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이것이 제가 증권회사 콜자금 차입이 중단되고 이런 재원구조의 변화를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태환 위원 마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좀 제도적인 혁신이 따라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너무 심하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번에 취임하시면 이 분야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개선 방안이 없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태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누가 지금 현재의 이 변화를 정확히 읽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위원장 후보로 되어 있으시고요, 저희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서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직접적인 대면이 의무화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대면이…… 제가……

○김영환 위원 확인이 필요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핀테크 사업에서는 이것이 지금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영상통화 등 대면확인 방식의 다면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렇지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융합에 창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섞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IT의 변화와 스마트폰이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금융산업과 이것이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에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 빼놓고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네거티브 형태로 이것을 바꿔줘야 한다 하는 제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융실명법에서 실명을 확인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실명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 대부분 대면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규정을 들어가서 보면 대면만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걸 풀어야 되겠지요.

○김영환 위원 시간 때문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이게 바젤협약에 나와 있어요. 핀테크에 관련해서는 기술 중립, 사전 규제완화, 사후책임 강화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침으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거 터무니없이 지금 뒤져 있다고 생각해요. 창업자금의 3분의 1이 실리콘밸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핀테크 산업에 관해서. 그리고 런던이 핀테크 종사자 수가 4만 4000명이고 기업 수가 2400개라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시드니의, 텔아비브의, 지금 텔아비브의 220개의 해외펀드가 투자를 시작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턱없이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걸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MP3가 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아이리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코닥이 디지털카메라에, 디지털카메라 기술을 개발하고 난 뒤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 안에 TV 들어갔지요,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인터넷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카메라로, 1600만 화소의 카메라 기능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TV와 컴퓨터 모니터와 이걸 다 대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스마트폰 온리(smartphone only)의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금융을 몰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는 지금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이것을 선점하지 않고는 IT 강국은커녕 앞으로 창업은 물론 이 스타트 업(start up)에서 다 밀릴 수밖에 없는, 혁신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중차대한 그런 업무가 지금 금융위원장의 두 어깨와 머릿속에 있다 이겁니다.

저희도 정말 플럭츄언트(fluctuant)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그 가장 중요한 최선봉에 지금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게 되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감하시고 이해가 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동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영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이거 정말 뇌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경제가 기업부채와 부실화 때문에 IMF 위기가 왔다면 지금 이번에는 가계부채 문제로 발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유로존, 일본, 중국, 초기의 미국 이게 다 양적완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 국가들이 전부 양적완화 해 가지고 우리가 우려했던 아베노믹스니 뭐니 했지만 투자 진작시키고 경기부양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팽배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투자 진작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지요.

금리인하 하는 순간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또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미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실제로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에 우리 자본이 그쪽으로 유출하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라는 짐 때문에 금리인하를 할 수 없고 경기를 부양할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양적완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 우리한테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정리 문제가 경기활성화 문제와 맞닿아 있고 그리고 내수 문제 그리

고 가계소득의 증가 문제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장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앞으로 관리해야 될 변수이고 또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임 후보자님,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가계부채 문제는 기재부, 경제부처 공동대응이 필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도 상환능력을 키워야 되고, 미시적·거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정통관료, 고위관료에다가 국무조정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계부채에 양적지표가 있고 질적지표가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0%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OECD가 135%인데?

저는 이 양적지표도 중요하지만 질적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1억 대출한 사람이 금리가 10%이면 2억 대출하고…… 금리가 5% 떨어지면 2억 대출을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느는 것을 저는 아주 심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가능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일맥상통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지표는 가처분소득 대비……

○이상직 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질적지표, 가처분소득 대비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시적·거시적 대응을 말할 테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려야지만 가처분소득이 늘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태에서는 국민 누구나 쓰는 필수비용을 줄여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가계부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예를 들면 대출금리가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금리가 인하돼야 돼요. 저는 좀 시각이 다릅니다, 일부 다른 위원님들하고요.

학자금 대출, 가계부담이 많은데 저축은행, 대부업들은 35~45% 받아요. 미시적인 이 부분을 낮춰 줘야 돼요. 그리고 자영업자 골목상권들은, 주유소니 빵집이니 지금 열심히 매출 올려도 소액 수수료—밴(VAN)사 수수료, 카드사 수수료—때문에 자기 생계가 안 돼요. 또 통신비 부담, 통피아들…… 통신비 부담이 가계부담에서 제일 많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현대자동차가 89% 독점기업인데 외제차하고 담합해 가지고 비싸게 받잖아요. 이런 등등이 다 독과점으로 돼 있어요. 은행 통신 휘발류 카드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독과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하든 경쟁체제로 해 가지고 필수 가계비용을 낮춰 줘야 실질가처분소득이 올라가요. 그 말에 동의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금융수장으로서 또 국무조정실장 한 그런 조정능력으로써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카드수수료는 인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카드사들이 직불카드 하면…… 낙전들이 여신협회에 1000억이 가 있습니다. 한 5년 지나면 바로 여신협회에 주게 돼 있는데, 매년 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영세사업자, 공공 밴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골목상권 다 할 수 있어요. 영세사업자하고 대기업들이…… 재벌들이 카드수수료, 납품단가 후려치면 다 그게 중소기업하고 큰 매출규모 있는 데 풍선효과로 다 전가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정우택 위원장, 김용태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직 위원 카드수수료를, 밴사를…… 전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있는 사람한테…… 중소기업 포함해서 공영 변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정액을 정률로 줘야 되고요, 밴사에 가는 것. 그리고 그 금리가 60%에서 지금 34.9%로 최고금리가 떨어졌듯이 계속 캡(cap)이 내려와야 돼요. 카드수수료를 낮춰 주는 게…… 자영업자들이 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유가 집을 담보로 대출해 가지고 지금 생활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질적지표를 올려 주셔야 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인터넷뱅킹 해야 된다고 했잖아

요? 저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핀테크 사업 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클라우드 펀드 빨리 하자고, 하도 안 하기에 제가 하자고 한 거예요. 빨리 해라, 경제만 창조경제…… 창조금융도 나와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막상 하려고 하면, 금산분리는 지켜져야 하잖아요, 은산분리는. 그러면 30대 기업들은 허용을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지방은행은 지금 지분 15%까지는…… 삼양사도 전북지주를 십 사점몇 %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있는 툴을 활용해 가지고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왜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키움증권 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압니다.

○이상직 위원 증권사 인허가 안 하고 독과점으로 하다가 시장을 개방하면서 온라인증권사 키움증권사가 생기면서, 그게 시가총액이 지금 한 1조 4000억 되고, 마켓이 1등이에요. 그리고 증권사고팔면서 수수료가 거의 제로까지 떨어졌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직 위원 시간 좀더 주십시오.

이렇듯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이런 게 독과점으로 돼 있는데 이 독과점을 경쟁체제로 바꿔 주는 방법은 인터넷뱅킹, 핀테크, 클라우드 펀드 이걸 갖다가 열어 주면서 그런 취지의 독과점을 깨면서 소비자, 투자자, 자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후생을 높여 주는 게 저는 진정한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고 중소기업이나 기술금융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가계부채라는 것이 부채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자산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하고, 그것이 결국은 비용을 줄여 주거나 혹은 거시경제적으로 소득을 올려 주거나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이상직 위원 제가 맥킨지 앤드 컴퍼니 보고에서 한국 가계부채 보면, 7대 잠재적 취약국 중 하나로 분류하고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보고를 한 부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적지표보다는 질적지표를 개선시키는, 정부 경제부처와 금융위가 특히 열심히 하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동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질적 부채구조, 즉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160%를 금융위에서도 155%까지 낮춰 보겠다 하는 목표지표까지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가계대책 문제를, 또한 반드시 금융 차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 소득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접근되도록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금융종합센터,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압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해양금융산업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3월 현재 수출입은행은 48명, 산업은행이 27명 내려가 있고, 무역보험공사 18명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산업은행이 다른 기관보다 적습니다. 적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선박금융상품 설계하는 이런 인력들이 좀 모자란다' 이러니까 산업은행장이 그때 '인력을 재배치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9명 정도만 이전을 하고 지금 아직 인력 이전 실적이 미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관서로서, 앞으로 취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예정입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해양금융종합센터는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할 수 있게 되면 산은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보고 충분한 인력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금융종합센터가 산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 가지고 그 기능이 대출하고 보증 기능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나 보증 기능도 중요하지만 투자 기능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금융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출입은행이나 KIC나 산업은행이 주가 되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중동의 국부펀드라든지 해외의 주요 펀드들이 동참하는 그런 글로벌 해양금융펀드가 조성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취임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말씀하신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글로벌 해양금융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그것을, 우리 후보자 말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해양산업 발전과 금융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잘 검토를 하시는데, 글로벌 해양금융펀드가 뭔지 아시지요? 지금 해양금융종합센터는 법인격이 없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정훈 위원 그래서 대출이나 보증 기능이 주인데 이것을 좀더 해양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글로벌 해양금융펀드가 필요하고, 저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님 중동 순방할 때 같이 가서 저는 저대로 사우디 투자청장, 또 무바달라 사장, 카타르 중앙은행 총재 만나서 이 부분을 제의를 하니까 다들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 관서장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관련되는 기관이 수출입은행이 아닌가……

○김정훈 위원 수출입은행, KIC, 산업은행 다 해당이 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런 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면밀히 협의하겠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정훈 위원 그것 조금 미진한데, 기사화시키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물론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김정훈 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규모야 역시 재원 조달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2억 불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규모를 키워 나가자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김정훈 위원 2억 불 그것은 우리가 내는 게 2억 불이고 해외에서 동참을 하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조선사·건설사들이 해외…… 제가 이야기하는 해양금융은 이게 선박금융 이런 좁은 범위가 아니고 항만개발, 해양물류 또 해양관광자원, 해양자원개발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해양금융을 발전시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답변이 미진한 느낌이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우리 전 정무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외이사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입 취지가 외환위기 이후에 위기를 겪게 된 게 방만경영이다, 특히 오너들의.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견제하고 그런 방만경영을 막을 것인가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전문성도 다 중요하고 하지만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견제하고 비판적으로 감시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거냐

이것이 사외이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올해 10대 그룹 주총 선임 사외이사 119명 중에 무려 47명이 청와대부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장차관, 전부 권력기관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원래 도입 취지하고 맞는 거라고 봐 지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데 위원님, 저도 직접 지주에서 사외이사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참여를 하셔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학영 위원 예, 그건 좋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 계셨던 분들 혹은 금융감독당국에 계셨던 분들 혹은 금융계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여러 경로로 찾게 되는……

○이학영 위원 아닙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지요, 이렇게까지 가면.

그리고 실태를 보면 최근에 반대율, 소위 오너의 결정에 대한 반대율이, 공시한 82개의 민간기관투자가 중에 그 반대율이 1.4%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극히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수기 노릇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 최대의 피해를 KB금융 사태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아무 결정 못 내리고, 또 현대가 10조의 큰 사옥을 살 때도 반대하나 없었고, 이걸 보면 사외이사제도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OECD가 기업지배구조 원칙에서 사외이사제도를, 기업경영을 어떻게 해라 하는데, 첫째 주요내용이 주주의 권리 보호와 주주권 적극적 행사 보장,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근로자의 감시기능 강화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서구의 몇 개 나라들이 그걸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종업원 대표도 들어가 있고, 독일이 대표적인데.

저는 아마 앞으로 주주만의 기업에서 이해관계당사자의 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원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놀랍게도 KB가 '소수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보장을 도입한다' 이것 들으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것도 좀 획기적인 것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학영 위원 저는 소수주주도 중요하고,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의 하나가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참여는 아직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하는 오해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갈 수 없다고 보아지고, 종업원 직접대표가 쉽지 않다면 우리사주조합이랄지 또는 그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경영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하신다면. 저는 이런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좀 전향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이념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해관계자가 주도가 돼야 되느냐, 혹은 주주 중심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 접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 독일의 사례도 있고, 그것이 독일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그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토론을 거치고 그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데 많은 과정을 거쳤고,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이해 관계자, 주주에 대한 오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도입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와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

○이학영 위원 위원장님, 계속 토론해 보시자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앞으로 열심히 토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후보자님에게 특별히 더 기대를 거는 것은 과거에 정책당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현장

에서 현실을 경험했고, 무엇이 필요한지 금융환경의 변화와 그 수요도 체험하셨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큰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금융여건과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 가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핀테크가 바로 그런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다 더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는 되는데 왜 한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게 나오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 경직된 금융 운용, 너무 엄격한 법규의 적용,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저도 같은 논조로 지금 말씀해 드리고요.

분명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대면 거래는 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인터넷뱅킹이 무려 35.4%, 비대면 거래가 전부 88.4%, 이것은 추세입니다, 추세. 따라서 이슈 선점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되 말씀하신 대로 그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보안사고는 보강해 가면 된다.

기술금융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의 창의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태 구태의연한 담보와 보증에 의존해서 해 오는 것은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특출 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죽이고 있고, 한국적 DNA가 아주 출중한 수많은 기술을 산업화하고 성장동력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금융에 대한 인프라도 반드시 깔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동의하고 그 인프라를 어떻게 깔아 주느냐 하는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대동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지금 울산 지역에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것,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유가를 책정하는 것은 싱가포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국제가 기준으로 해서……

○박대동 위원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북아 오일허브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단순히 저장 탱크를 넓히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용량을 넓혀도 그 자체만으로는 그냥 창고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부를 생산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금융…… 시카고에서, 잘 아시잖아요, 곡물거래소의 경우처럼?

그래서 금융적인 수요가 창출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국제석유거래소가 설립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좋은 말씀…… 동감합니다.

○박대동 위원 지금 아마 관계…… 저도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거래소를 중심으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좀 박차를 가해서 창고에 그냥 머물지 않도록, 오일허브가 정말로 파생금융 거래를 비롯해서 금융서비스를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지향적인,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지금 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과거의 너무 엄격한 잣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우리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 법제도도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예컨대 은행법을 비롯해서 금융 관계법도, 저희도 물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개방화되지 못했던 시대에 맞추어져 있어서 글로벌 시대에, 이 개방화된 시대에 적용될 수 없는 그야말로 낙후된 법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금산분리 등으로 인해서 엄격히 돼 있다 하더라도 동남아 다른 국가에서는 유니버셜 뱅킹 시스템으로 인해서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해외 진출할

때 우리 법에 묶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문제를 실무자들로부터 한번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차제에 아주 획기적으로 금융산업에서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되시거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금융규제는 하여간 자율과 경쟁을 기조로 해서 그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이슈 선점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장님 시대에 그걸 놓치면 우리 경제 먹거리를 정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믿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우 위원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가지 우리 후보자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핀테크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해서 굉장히 저한테 와 닿았어요. 뭐냐면 ICT 기술을 하는 쪽은 금융을 모르니까 도대체 이 기술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겠는가를 잘 모르고, 금융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술까지 개발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당국에서는 도대체 이 두 기술을 접목할 경우에 뭐를 지금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3자가 같이 모여 앉아서 협업을 해야겠다라는 말이 참 와 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몰라서 내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산분리가 확립이 돼 있고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3자 간의 관계를 보면……

자, 금융업에서 ICT 기술을 차용해서 인터넷뱅킹 쪽으로 간다면 이 문제가 문제가 안 되는데, 거꾸로 말이지요 IT 기술을 가진 어떤 재벌의 자회사가 은행업에 들어간다면 여기 딱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은산분리 문제와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를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은산분리 문제를 취지는 살리되 리폼할 때가 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설명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제가 가진 생각은 이렇습니다.

은산분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가 돼야 합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거나 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를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보완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도 역시 은산분리가 가지는 취지, 즉 대기업의 사금고화라든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금 TF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논의에 참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우 위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마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오전에 언급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새로운 부가가치나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이 아니라 기존 은행 업무의 대체 아니냐. 다만, 기술적으로 조금 앞서 가기 때문에 인력을 절감하고 이런 건 있지만 이게 지금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아니라 있는 은행업의 대체라면 이게 경제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제라든가 송금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아까 죽 중복이 됩니다마는—인터넷은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지금 은행과 모습이 달리 좀 일부의 역할만 하는 은행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비은행권에서 바로 이런 은행업에 들어올 경우에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질 않아서 저도 어떤 대상을 두고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좀 이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금융업계에서. 소위 말해서 '메

기효과'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조금 더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런 효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상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우 위원 총론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 영 내 궁금증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저도 사실은 구체적 방안을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신동우 위원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신동우 위원 하나 질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대체거래소제도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여기에 나름대로 시행령으로 규제를 해서 틀을 짜 놨단 말이에요. 새로운 대체거래소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규제하에서 우리 만들 수가 없다. 타산도 안 맞는데 대체거래소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일단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소통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ATS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역시 기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침체해 있다는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얘기를 한번 정확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이고 왜 출연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고 그것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동우 위원 마지막 질문, 1분만 더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마무리하십시오.

○신동우 위원 이미 이것은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ATS는 예를 들어서 '시장거래를 5%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대체거래소를,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서 옳지 않습니까? 어떤 업소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한다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ATS 제도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예의 그 현장을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를 간 적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귀국하셨는데, 아주 힘들게 힘들게 은행이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는데 벌써 몇 년째 국내 은행이 말레이시아에, 의사는 가지고 있지만 몇 번 검토해 보다 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은행들이 경쟁력이 없대요. 말레이시아 금융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포기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 은행 못 들어가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알아보셨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닙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국가경쟁력 순위를 144개국에서 우리가 한 20위권에는 든다고 그래요. 좀 떨어지고, 이명박 정부 때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런데 은행은 수준이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수준이, 대략적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우리의 경제력보다는 훨씬 떨어지는데……

○이종걸 위원 한참 떨어지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WEF 같은 데는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었고 IMD 같은 경우에는……

○이종걸 위원 100위권 이하지요? 온두라스 그 다음이고 그러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뭐 그 수치에……

○이종걸 위원 181위, 79위, 122위 그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아무튼 우리가 뒤쳐져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한……

○이종걸 위원 정책결정 투명성은 133위, 주식

시장을 통한 자본조달 65위, 이렇게 지수가 아니라 경쟁력에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지금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지요?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가, 은행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은행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큰 은행들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금융정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되시면 금융정책·금융감독까지 다 할 것 아니에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그거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조금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금융개혁 정책, 3월 달에 어디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금융개혁이 아까 모두말씀에도 위원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낮아져 있는 우리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한 6개 정도의 명제를 설정을 해서……

○이종걸 위원 다 얘기하실 필요 없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금융이 이렇게까지 후진적입니까' 그랬더니…… 사실 저희 정치권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정치권 투명성 지수 그러면 저희도 한 150위, 저 가나 다음 국가로 우리가 분류되더라고요, 정치권 순위가.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인사청문회니까 금융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낙하산이요' 그러더라고, 낙하산.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이 전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굉장히 내용이 함축적인 겁니다.

그것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 하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전문가들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행을 정립하는 일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소신으로 알고 앞으로 행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지금 금융제도를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유럽형의 은행 중심 체제가 있고, 일본도 거기 포함되는데, 그다음에 영미 식의 시장 중심 체제다 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장 중심은 대출을 하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선택해서 대출 우량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매칭해서 금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행 중심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늘 관리하고 아주 동반자 관계, 금융과 산업이 동반자 관계로서 평가도 하고 늘 도와주고 이런 관계인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한 줄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건 책이니까 꼭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그런 얘기 보신 적 있지요? 우리는 정부 중심, 재벌 중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국자본 중심.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 낡은 규제도 걷어내고 또 금융당국의 감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태도 바꾸고 또 금융회사 스스로의 문화도 바꾸고 이러한 개혁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걸 다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저에게 허락된 기한 내에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우선 구조상 말이에요, 구조상 우리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는 금융위원회는 금방 누가 보더라도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래 어떤 산하기관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민간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정책과 감독이 제대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그게 정책과 감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혁작업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독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는 동반자 관계이고 혼연일체

가 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위원님 지도를 받아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작한 지 한 2시간 지났는데, 오후 회의요, 잠시 정회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김영환 위원 계속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계속이요?

○김영환 위원 4분씩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3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는 기본적으로 3분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3분 하고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씩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제 대단원의 막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학영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우리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내정된 주된 근거로 후보자의 농협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재직 시 리더십과 업무능력을 들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는 홍보비라는 항목에서 집행을 하는데 보통은 광고를 내고 나서 홍보비를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사 임원이 기고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면 후불제로 그렇게 하나 봐요.

그게 맞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그 관행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모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학영 위원 후보자께서 2013년 7월 18일 바로 취임 직후에 나온 언론 인터뷰도 내용이, 아실 거예요. 직원들 야성을 끌어내서 다른 금융지주와 협력을……

기억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학영 위원 그것도 기획보도비로 68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농협은 이런 기획보도 비용으로 34억을 집행했고, 그래서 농협은 희한하게도 선 광고 후 집행이 아니고 기획기사가 나가거나 인터뷰기사가 나가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을 사실 보도기관이 아니고 홍보성 기관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개인회사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언론을 그렇게 이용했다는 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전 모 위원장님께서는 보통 이쪽 국회에서 열심히 답변하시고 돌아가서 언론에, 약간 다른 뉘앙스로 언론에 이렇게 흘려요. 예를 들면 KB 신임회장 공모 시에도 미리 '모모 인사가 능력이 있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외환은행·하나은행 통합 관련해서도 여기서 답변은 회장님하고 똑같이, 우리 후보자님하고 똑같이 '노사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고 나가서 언론에다는 슬쩍 '더 기다릴 수 없다. 급하다' 이렇게 해서 조여옵니다.

후보자께서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보다는 정부의 정책 집행을 또는 특정한 정책을 또는 윗선의 내정된 인물을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론기관을 이용한다면 안 될 텐데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용태 이학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언론기관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도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론에 제가 하는 얘기, 곧 그것이 시장에 알려지고 또 의원님들께도 동일하게 알려질 텐데 그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용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운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룡 위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월 3일 날 범금융 대토론회에 참석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했었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때는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격으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랬습니다.

○이운룡 위원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최근 금융사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의 목소리

를 가감 없이 전달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빨간딱지라는 게 규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용태 간사, 김기식 간사와 사회교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빨간딱지라고 영업점에다가 일정한 규격으로 '우리 금융회사는 민원등급이 5등급입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운룡 위원 그러니까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에 따른 평가등급을 갖다가 게시하는 거지요, 영업장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걸 빨간딱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러면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민원을 줄이는 것이겠지요.

○이운룡 위원 이게 금융사의 자발적인 민원 예방 노력을 위해서……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작년 5월에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5월에 도입하고 6월호 국회보에 이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금감원에서 실어놨습니다. 거기 보면 취지도 있고 효과를 보면 '사전예방성격을 지닌 시장규율방식으로 금융당국의 검사나 감독을 통한 강제보다 바람직하다, 금융소비자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감독 당국이 국회보에 실은 내용입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도 금융사들이 많이 있고 또 은행 입출금도 문자알림서비스까지 사칭해 가지고 금융사기가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꼭 폐지해야만 됐을까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얘기한 것은 민원 발생을 줄이려고 하는 제도의 목적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가제도로 인해서 지금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싣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객장에다가 실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실제 받아야 될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과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지점에 있는 직원들한테 방문을 해 보니까 굉장히 낙담을 하고 그것을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그렇긴 합니다마는 블랙 컨슈머, 이걸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것은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의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면 이게 좀 과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운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마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민원평가제도야……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과정과 절차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정리를 할 게요.

그 소비자보호제도 도입 목적 자체는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운룡 위원 그럼 만약에 위원장 되시면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좀 강화하셔 가지고 또 금융권 스스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경영 가치의 하나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운룡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이운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은행의 조속한 매각을 말씀을 하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조속히 매각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중에서는 채권매각 시 흔히 사용하는 더치(dutch) 입찰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더치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기준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다양한 매각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

안 매각 경험을 전부 살펴서요 이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금 모아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또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우리은행 민영화 관련해 가지고 아쉬운 거는 참 애초부터 금융위가 이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욕심 없이 조속한 민영화 쪽에 비중을 두고 분산 매각 쪽으로 했으면 진즉 잘 해결이 되었을 것을 너무 그런 부분에서 통합 대형화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보자께서 2013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래서 내정 후에, 수정 신고 후에 213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신 사실이 있으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준 위원 국민들 앞에 해명 한번 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소득을 저는 기타소득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건 뭐 분류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사업소득이 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모르고 그러셨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건 제가 정말 …… 그것 또한 불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계정 처리에 관한 문제를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는 지금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한 인식하고 궤를 좀 같이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국은행에 질의를 해서 받은 답은요, '가계부채는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 둔화를 초래한다.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소비 제약 임계치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한다.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켜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은행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조금씩 다 기관마다, 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방안 중에 기관들끼리 좀 모여서 정확하게 서로의 생각을 정리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대응 방안도 같이 강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 기관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차를 조정하고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것,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준 위원 가계부채는 총량 억제, 구조 개선,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이 세 가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동의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구조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은 그동안 잘, 많이 해 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런데 총량 억제를 위해서는 ……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총량 부분에서만은 제 생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아까 김기식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기준 위원 총량 억제를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소득 제고, 가계 소득 제고정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물론 거시경제 측면이기는 하지만요,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든가 계층 간 소득재분배를 적극적으로 편다든가, 소득주도 성장전략이라고 그러지요. 이러한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은 필요하고 또 앞으로도 강구돼야 되고 지금 부총리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퉁퉁 분 국수' 대통령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 퉁퉁 분 국수를 먹을 수 없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수도 먹을 수 없는 계층, 그것이 젊은,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창업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아니면 창업 말고는 일자리가 없는데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창업 말고는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겠는데 창업자 연대보증과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입보면제 특례조치라는 것 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것 효과가 전혀 없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도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효과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것 정말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이 9828개의 창업기업 중에서 면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116개입니다.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6736개의 창업기업 중에서 면제 혜택 기업이 7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업자 연대보증 관련해서 아무 실효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야 어떻게 거침없이 창업할 수 있겠습니까?

또 패자부활, 재창업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은 문제와 관련해서 우수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 채무 조정하고 신규 보증하는 정책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그런 것 시행했는데 구상권 업체가 2만 개 이상, 채무자가 6만 명 이상인 반면에 지원 업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적은 숫자……

○김영환 위원 이것의 혜택을 받은 업체가 6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고 재창업을 하고 패자부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창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업 도전의식을 갖고 정주영식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을 10만 명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태의 이런 조건, 이런 환경에서 창업하고 연대보증해서 신용불량자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포세대라고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삼포.

○김영환 위원 결혼도 못 하고 연애도 못 하고 출산도 못 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영환 위원 이렇게 내몰려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이번에 위원장이 되시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아까 박병석 위원님께서도 대학생, 청년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시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유념해서 이에 대해서는 간단없이 대책을……

○김영환 위원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국도 가 보고 일본도 가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창업의식, 도전의식 또 이런 창업에 대한 생각이 중국보다 뒤지게 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제도 때문에 창업 했다가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평생 동안 재취업도, 재창업도 할 수 없는 제도 속에서 어떻게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창업국가가 되겠습니까? 이 중차대한, 뭐라고 할까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아주 각별히 신경 쓰셔

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금융산업의 발전 중에서 은행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블루오션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역시 해외, 국제화 전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석 위원 예, 저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국내 은행의 수익구조가 크게 보면 예대마진, NIM이지요? 예대마진이 약 89~90%, 그다음에 국내 수수료가 약 8~9%, 해외에서 약 1~2%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렇지요, 구조가?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박병석 위원 그런데 국내는 이자가 낮은 상태에서는 예대마진이 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치한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대출처가 없어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리고 국내 시장은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블루오션은 해외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 현황이 어떠냐, 98년 IMF가 났을 때 태국에 진출했던 우리 은행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다시 진출하려고 그러니까 은행업은 인허가업이기 때문에 안 내 줘요.

작년에 금융계로서는 소위 미얀마의 굴욕이라고 할 정도의 굴욕이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해외 은행 9개 지점을 인허가 해 줬는데 대한민국은 단 한 회도 없었어요.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은행장이 다 가서 세미나도 하고 초청도 했는데 대한민국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 해외 진출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외 진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박병석 위원 저는 CEO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박병석 위원 해외라는 것은 대개 임기 3년 동안에, 내가 투자해서 3년 동안에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즉 투자만 있지 산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부가 임명하는, 사실상 낙하산으로 오는 사람은 내 3년 동안 별 탈 없이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투자만 하고 산출이 없는 해외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이 투자는 최소한 10년, 30년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가 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되는데 다른 은행은 상대적으로 안 되느냐, 주인이 있는 은행은 멀리 보고 하는 것이고 주인이 없는 은행은 내 임기 동안만 보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양성인데 지금 국내에 어떻게 되느냐, 작년의 경우 일본 지점이 국내에 4개 들어와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예.

○박병석 위원 국내에 들어온 일본 은행 4개 지점에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대한민국 4대 은행 중의 하나가 벌어들인 돈하고 규모가 똑같아요. 우리는 해외에 나가서 다 적자입니다.

블루오션이 해외에 있고 갈 수밖에 없다면 CEO들의 마인드를 바꿔야 되고 10년~30년을 봐야 되고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냐. 해외 지점, 비서실 출신, 인사 담당 출신이 갑니다. 갔다가 돌아오면 해외 업무 담당 안 해요. 또 다른 데로 가요. 그나마 인적 축적이 안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CEO들이 앞으로 우리 은행업이 갈 길은 해외다, 마인드를 고쳐라, 인적 투자를 해라, 장기투자를 해라, 특히 비영어권은 어학연수를 해라 하는 등등으로 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 은행들을 정부가 권유하기에 한계가 있다면 우리 실력 있는 국책은행이라도 먼저 가서 실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해외에 진출하는 것

이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제게 제안 주셨듯이 국책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국책은행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책은행의 실제 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박병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아!

○이상직 위원 말씀하세요.

○박병석 위원 하나를 빼놨네요.

○위원장대리 김기식 예, 잠깐 하시지요.

○박병석 위원 1분만 주십시오.

우리가 금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작년에 큰 문제가 됐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회장을 맡았는데 그게 금융위원장 자격이 아니라 신제윤 개인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바뀔 수도 있고 또 한 분이 열세 번의 출장을 가게 돼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때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 주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건을 붙였어요.

(김기식 간사, 정우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 위원장으로 가는 것하고 국제회장으로 가는 것하고는 만나는 등급이 다르다, 이것은 신제윤 개인의 재산이 돼서는 안 되고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국장·과장·사무관들을 꼭 대동함으로써 네트워킹을 만들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출장 갈 때 국장·과장·사무관들 다 같이 가서 네트워킹 마련하고 국제적 안목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직 위원 임 후보자님, 금융규제 개혁과 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통해서 자본시장 육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해 가지고 먹튀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상직 위원 비금융 전업사가 은행을 인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ISD 소송가격이 4조 원에 이르는 등 지금 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리고 KKR 펀드가 OB맥주를 인수한 사례가 있고 또 조세 불복으로 심판청구 1500억 원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이렇게 지금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국내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먹튀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버린 먹튀 펀드가 SK텔레콤을 가지고, SK지주회사를 가지고 또 먹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반면교사 삼아 제2의 론스타 및 제2의 KKR, 제2의 소버린 사태가 안 오게끔 금융위원장으로서 잘 정책지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당연히 그런 지도나 관리는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상직 위원 그러면 또……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상직 위원 나중에 말씀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상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또 논란이 돼 있어요. 금감원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또 상반된 입장을 보여요. 보고·KKR 펀드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의 건을 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꼼수로 한토신 지분 한 90%를 넘게 출자하면서 이게 3개의 SPC로 쪼개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내 GP를 내세우고. 꼼수를 피우다가 금감원에 적발되어 가지고 먹튀 논란이 있는 데고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또 다르게 꼼수를 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보고·KKR 펀드로 들어오니까 그걸,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간략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간략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직 위원 그러면 이 KKR이 아까 말한 대로 OB맥주 인수 사례, 조세 불복 1500, 먹튀의 논란 중심에 있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저널 1월 말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KR이 차입매수로 피인수기업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면서 각종 명목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제일 발달한 미국에서조차 KKR을 거의 금융마피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와서 지금 이렇게 먹튀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짚어 봐 주시고요.

두 번째로 금융 전업사가 외국이든 국내든 금융사 인수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비금융 전업사가 금융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금산분리·은산분리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직 위원 그런데 외국이, 비금융 전업사가 이렇게 조세회피지역이나 PEF 펀드, 먹튀 행태를 보이는 펀드가 금융회사 대주주로 들어오면서 꼼수를 피우고 하는 걸 갖다가 하면 국내 산업자본은 역차별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양산화되고 양성화되면 국내 산업자본이 조세회피지역이나 이런 등등의 이유에서 국내 기간산업, 은행뿐만이 아니고 전력·가스·방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노림수가 있고 실제로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IPO 시장부터 해 가지고 증권시장부터 교란하고 또 탈세, 편법, 자금탈루하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게 외국인이 아니고, 또 외국인을 봐주다 보면 검은머리, 한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기업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층이 있고요. 이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니까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검은머리 외국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자본시장 활성화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가, 조세회피지역에 탈세·탈법한 돈을 가지고 검은머리로, 외국인으로 둔갑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건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건 자본시장을, 독버섯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KKR의 한토신 문제는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은 제가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보고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증선위를 중심으로 공정한 심사를 할 텐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에 따라서 대주주 요건의 심사요건 충족 여부를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펀드가 갖는 폐해, 사실은 저희가 론스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라는 것은 기능적으로 보자면 뭔가 위험한, 즉 기존 금융권이 할 수 없는 곳에 투자를 하는, 즉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는 구조조정하는 기능도 있고 또 혹은 새로운 약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순방향 쪽으로 가져가도록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상직 위원 30초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증권에서 펀드매니저도 하고 애널리스트도 한 10년 근무한 사람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50인 이하로 하니까 금액도 규제를 하면 안 되고 풀어야지요. 지금 5억 이상으로 돼 있는데 2억·1억 다 풀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은행은 재벌·대기업도 못 들어가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금산분리다, 은산분리도 하고.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습니다.

○이상직 위원 또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 전력이니 가스·방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모펀드가, 먹튀

들이 와 가지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금융위가 동조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상직 위원 50인 이하니까 다 풀어 주고 마음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있는 은행이나 이런 데는 더 철저히 감시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방위망이, 방어선이 뚫렸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 하면요 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참여연대 시민운동 시절에 한 20년 가까이 권력 감시 쪽 영역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부터 이른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사람이 이 정권 끝나기 전에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배려해 줘야 되는 보은인사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자제하다가 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이 바로 이 금융권 영역입니다. 공교롭게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께서 위원장이 되시면 바로 그 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아마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임종룡 후보자의 재임기간 내내 소위 관피아 문제보다도 정피아 낙하산 문제가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 세 분이 다 정치권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서금회 멤버거나 혹은 과거 새누리당 출신이거나 새누리당 인사와 관련된 분이 됐습니다. 지금 KB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원칙을 지키시겠습니까? 정치권의 이 보은인사에 대해서 확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신을 지키고 그 소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은행권만이 아니라 지금 대우조선해양의 고재호 사장 임기가 3월 29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정기주주총회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장추천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이사회에서 사장 후보를 못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하고, 산업은행의 홍기택 회장이 소위 서강대 인맥을 챙기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권을 넘어서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멀쩡한 기업의 사장 자리까지 정치권이 넘보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아니, 정치권의 이런 외압으로 인해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업체의 사장 선임이 지연되고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이런 일 이거 방치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대우조선에 관한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취임하게 되면……

○김기식 위원 3월 31일 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위원장 취임하시면 즉각 조치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조금만 시간을……

핀테크 문제와 관련해서요. 저는 핀테크산업 육성할 필요도 있고 이게 금융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핀테크산업이 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금 선진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든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든지…… 저는 다소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렇게 급격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중요한 글로벌 트렌드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뱅킹이나 여러 가지 이미 첨단기술에 기초한 금융기법들은

사실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는 거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상대적으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결제시장만 해도 카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돼 있다든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IT 쪽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것이 글로벌스탠더드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앞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기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가지고요 금산분리,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 후보자께서 입장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돼야 하지만, 적어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의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여러 가지……

○김기식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식 위원 이게요 지금 이제 TF 만들어서 그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해서 6월 달에 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연초에 신제윤 위원장이 발표한 것은 마치…… 지금 언론, 신문 보십시오. 다 인터넷은행 도입 허용,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위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보여주기 행정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듯이 정책을 던져 놓고 그리고 나중에 논란되는 것은 방안을 구체화해서 제출하겠다…… 저는 전임 위원장 청문회 때부터 누차 얘기했던 것은 정책당국 책임자의 말은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필요 이상의 기대심리를 만들어 내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 실현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부작용을 만들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고 정제된 발언을 해야 된다, 섣불리 정권이 창조경제 한다고 그러니까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니까 '핀테크 이거 첨단기술이니까 뭔가 우리가 하는 듯이 보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발언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금융권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제가 재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약간 얼핏 지나가면서 지금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규제를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보자? 그러셨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뭐가 문제냐 그것도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해서 잘 조화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종걸 위원 지금 가장 금융실패 사례가 뭡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기가 생긴 거겠지요.

○이종걸 위원 카드, 저축은행, KIKO……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소비자 보호가 침해됐던 사례들이었겠지요.

○이종걸 위원 여기 배후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양손에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서 그걸 제대로 이것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긴 것이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소비자 보호에 침해가 생겼던 여러 가지 사고는 그 원인이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과 규제를 한꺼번에 가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이종걸 위원 그것은 지금 기본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이종걸 위원 지금 금산분리는 그래도 우리 후보자께서 어느 정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을 봤는데, 금산분리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산업의 감시자가 은행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은행 중심, 시장 중심인데 시장에서 감시하느냐 은행에서 감시하느냐…… 감시자가 은행인데, 산업은 피감시자 아니에요? 그것이 같은 구조에 머지(merge)가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산분리의 문제를 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 아닌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금산분리의 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겠지요. 무엇보다 사금고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은행의 건전성 혹은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겠지요.

○이종걸 위원 우리나라에서 말이지요 비은행 금융기관에 관해서는 지금 금산분리라는 것이 규정이 거의 없지요? 굉장히 완화되어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거의 생명보험·화재보험 1·2위 업권에, 그 거대 기업 안에 그것이 들어 있다는 걸 보고 일반 사람들이 다 놀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의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에 금산분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나 보면 금산분리의 그 사회적 작동원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2금융권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과 똑같은 그런 규제를 가져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그 행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계열의 이익이나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 이런 장치들이 일종의 은행에서 얘기하는 은산분리 규제, 이 장치들이 2금융권에서는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이따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종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우리 김기식 위원이 재재보충질의가 있어서……

○박병석 위원 3차 질의가 끝났지요.

○위원장 정우택 예?

○김영환 위원 3차 질의가 끝났다고요.

○위원장 정우택 예, 지금 김기식 위원 한 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저 혼자 질의가 남아서 제가 간단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질의내용 남아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 법을 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4월 달에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저희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럴 경우에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하면서 제기되는 문제가 소위 이른바 블랙컨슈머의 문제입니다. 이 블랙컨슈머 문제를 저는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는 지금 블랙컨슈머를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나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이 블랙컨슈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은행의 민원을 평가해서 건수별로 은행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은행은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블랙컨슈머에 의해서 은행 직원들의 인권유린이 발생해도 '참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컨슈머를 금감원이나 은행 차원에서 관리해서 심각한 어떤 유형을 정해서 그것이 반복될 경우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소위 민원 건수 관리에서 예외로 함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의 운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지금 아직 충분치 않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안을 좀 4월 달에, 위원장이 되시면 좀 금융위에서 보고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사실은 대개 창구에서나 전화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인데 이것은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동권 보호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이 블랙컨슈머,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약에 은행에서 은행 직원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김기식 위원 다시 말해서 이런 도를 넘어선 인권유린이나 폭언·폭행에 관련된 수준에 있어서는 회사가, 금융회사가 그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는 그런 것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실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불합리한 경우를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랙컨슈머의 출현 문제를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금감원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

니다.

○김기식 위원 우리가 한편에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이 블랙컨슈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감사합니다.

○김기식 위원 기술금융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창조경제 강조하니까 '기술금융 활성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CB 전문인력 확충하고 기술금융 등급 평가하고 기술신용에 따른 대출 실적을 공개하고 뭐 이런 등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 28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작년도 혁신성평가를 하니까요, 기술금융 확산 분야에서 신한·우리가 우수고 씨티하고 제주은행이 미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상위는 신보·기보에 내는, 소위 출연료 할증하거나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는데, 위원장 후보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제주도에 무슨 제조업이 있어서 제주은행이 무슨 수로 소위 기술금융 평가에 의한 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은행 현업에도 계셨으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얼마큼 대출했는지 그것 갖고 점수 매겨서 인센티브 주고 페널티 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현장에서 소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융위가 무리한 일 한다' 이런 소리 나오는 거지요.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보완 방안도 마련을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두 번째로요, TCB 은행 대출이 많은 기업으로 신한·우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신규 대출률을 보니까 22%, 19%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TCB 대출했다고 하는 것의 80%는 기존에 원래 하던 데들을 그냥 기술금융대출이라고 포장하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금융위에서 쪼니까 그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기존 대출 하던 데들을 기술금융에 의해서 해 줬다 이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위 TCB 활용에 의해서 그냥 기술평가에 의한 순수 신용대출 비율이 20%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그냥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거지 실제 기술금융 평가에 의한 소위 창업기업이라든가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실태조사 시 같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정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클라우드펀딩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이 지금 현안으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요, 이것 역시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뭔가 보여 줘야 된다고 해서 이 법안을 추진을 하는데 금융위가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어떤 것 하나도 지적했을 때 충분히 검토한 안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업계에도 제가 공청회를 해 보니까 입장이 갈리는데요, 개인의 투자한도를 대폭 낮추고, 그러면 리스크가 적으니까 대신에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줘야 한다라는 방향하고 그렇게 되면 너무 투자금액이 적으니까 개인의 투자한도를 상당 정도, 500만 원 이렇게 올려주는 대신에 투자 규제를 조금 유지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갈립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님은 어떤 쪽 방향이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 일단 지금 안이 가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자세히 뭐 많이 들여다 본 것은 아닙니다만 클라우딩펀드법이 저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방법상의,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업계 입장이 갈리면 금융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투자금액 한도를 낮춰서 규제를 더 많이 풀어줄지, 투자 한도를 조금 높여 주고 규제를 일정하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판단을 못 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질의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겁니다.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투자자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김기식 위원 그런데 발행기업의 최대주주의 전매제한규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자는 계속 주식을 갖고 있으라고 하면서 소위 발행기업은 먹튀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없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 전매제한을 오히려 풀고 최대주주는 전매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이 문제도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좀더 여론도 들어보고 공부도 해서, 클라우딩펀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금융위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기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금융위 위원장후보자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금융위 관계자들이 보조를 해 주셨을 텐데 이 클라우드펀딩 법안은 작년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이래로 금융위가 모든 법안에 우선해서 첫 번째로 해 달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가 이 법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후보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 떠나계셨으니까. 금융위 자체가 이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못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정리하고 있지 못한 쟁점을 갖고 국회에 와서 법안처리 안 해 준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금융위 모피아들이 과거 모피아 같지 않다, 내용도 전문성도 실력도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로서 지금 금융위의 이런 업무처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통령 관심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법을 처리해야 하고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위원회로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일 취임하게 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저희 의견을 명확히 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걸 위원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이종걸 위원 예.

○위원장 정우택 이종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후보자께서 1999년부터 은행제도과장, 증권제도과장 그리고 금융정책과장, 금융정책심의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가 조금은 압니다. 또 2007년 경제정책국장, 정말 아주 오서독스한 요직, 예전의 재무부의 이재국을 다 두루 섭렵하신 분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우리나라 금융정책 또 금융감독, 예전에 금융위원회가 없을 시절에 은행제도과장에서부터 죽 했던, 두루 해 보셨던 분이에요.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여기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 요약해서 상당히 자부심 있게 글을 쓰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경제정책 역사, 금융정책사를 보면 이 경력이 빛이 바래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다 지나갔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그다음에 2008년에 서브 프라임, 다 경제위기지요?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내 책임 아니다, 해외에서 밀려 들어온 위기를 관리했던 것이고 그 관리에 관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었다, 그것을 잘 극복했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하나 얘기한 게 무슨 얘기를 해 드리려고 했던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걸 위원 하나는 금융위의 감독과 정책 또 우리나라 금융 유형적 제도, 우리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미식의 시장 중심도 아니고 또 유럽식의 은행 중심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 재벌, 외국인 외국주주, 정부. 제가 아까 낙하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금산분리 얘기했잖아요? 금산분리의 그 전형적인 게 뭡니까, 지금? 큰 기업 삼성, 손도 못 대고 있지요. 또 외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외국에 그런 제도가 없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랬지요?

지금 또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공적자

금이에요.

후보자가 2011년에 뭐 하셨어요? 경제정책국장 하셨던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2011년이면 아닙니다, 기재부에……

○이종걸 위원 그때 차관인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차관이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공적자금이 168조가 투여됐어요, 그때까지요. 그때까지 마무리. 처음에 68조였지만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168조가 이게 무슨 어디 눈먼 돈입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계속 내용 중에서 공적자금이 발생하게 된 위기, 경제위기의 그 주범이 뭐라고 그럽니까? '외국에서 왔다', 외국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면에서 어떻습니까? 금융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융이 주범이거나 그 위험을 확대시킨 공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보니까 '잘 해결했다' 그러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 지금 산업은행이 대우증권을 파네 또는 대우건설을 파네, 그다음에 우리은행, 이게 다 공적자금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 단계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성 있게, 이 공적자금 168조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이것을 정말 눈먼 돈이 아닌 책임 있게 이것이 집행되고 분배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적자금 투입을 할 때, 즉 구조조정 당시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위원 위원장께서 '금융개혁' '경제' 이것을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후보자가 되셨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금융……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뭡니까, 지금? 이게 80위 90위 뭐 100위, 말레이시아은행에 경쟁력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이런 아주 최고 후진적인 금융정책 금융기관의 이유는 아까 제가 죽 나열한 것을 순서대로 보면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께서 그 전체를 한번 일괄하실 생각 있으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종걸 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금융기관의 금융제도의 후진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위원님 말씀……

○이종걸 위원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말씀 아무튼 뼈아프게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을 해서 앞으로 금융개혁을 위한 제 사명을, 제 소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택 다 마치셨습니까?

이종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재영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예, 하십시오.

○이재영 위원 후보자님, 핀테크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산업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고요.

외감법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재영 위원 이게 주식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 맞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것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취지는 동의하십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당연히 시장에 의한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여기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어떤 주식회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재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대부분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데 금감원이 특히 유의해야 할 유형의 경우에는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시행 시기요?

○이재영 위원 예, 3월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이재영 위원 3월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감사인 강제지정 기한이 있더라고요, 3개

월 정도. 이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증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것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소가 되면 감사인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시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 사항인 것 같던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들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재영 위원 아, 그러세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취임하시면요, 제가 봤을 때도 만약 기간 내에 자기네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면 감사인 지정 감사인 교체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 이런, 시장에서 어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는, 또 다른 법령에 시행 근거를 둔 그런 요구 사항인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되시면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식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택 이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려는데요.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 가셔서 원전 수출한다고 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 가지고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100억 달러 금융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은 적 있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김기식 위원 그때가 기재부 차관이셨고,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정책금융공사로 하여금 출자를 하도록, 도로공사 주식 그렇게 요청하셔서 그것 출자받으셨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때 수출입은행에 무슨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출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게……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후보자가 1차관이던 시절에 2011년 4월 달에 기재부에서 정책금융공사한테 수출입은행에 대해서 1조 원 출자를 하도록 요청을 해 가지고 도로공사 주식으로 1조 원 출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출입은행이 그 당시 규모로는 그 100억 달러에 따른 자금조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UAE에서 '더 이상 필요없다.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버렸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그 이후 진행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검토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조달 금리가, 우리가 더 높고 UAE가 금리가 더 낮은데 더 비싼 우리나라의 그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성과 포장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딱 그겁니다.

어쨌든 UAE에서 수출입은행에서 그 금융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다 자체 조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금융공사가 수출입은행에다가 1조 원 출자해 준 것은 다 필요가 없어진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에 통합이 됐습니다. 이 1조 원 출자 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글쎄요, 그 상황…… 이후에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1차관일 때 추진하신 일을?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아니, 1조 원에 대해서 출자한 것은 알겠는데요 그 이후에 저쪽에서 안 받겠다라든가 수출입은행이 지원을 안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도로공사 주식 등 1조 원의 자산이 수출입은행으로 출자되어진 거예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UAE에서는 '필요없다' '한국에서 금융 지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요.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위원님, 제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경위가 어떤 것인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을 내놓기는 아직 제가 아는 내용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김기식 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후보자 임종룡 존경하는 정우택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충고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국회 정무위원회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기고 만일 제가 위원장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잘 챙기고 또 앞으로 행하는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금융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금융정책 현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후보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를 거쳐 작성한 후 내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 위원(21인)

강기정	김기식	김기준	김상민
김영환	김용태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민병두	박대동	박병석
신동우	유의동	이상직	이운룡
이재영	이종걸	이학영	정우택
한명숙			

○청가 위원(1인)

최경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진정구
전문위원	최시억
전문위원	박창현

○출석 공직후보자

임종룡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사무처장	고승범
대변인	육동인
중소서민금융정책관	도규상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유일호	이재영	새누리당	2015. 3. 6

○의안 회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3. 3 유승희·장하나·이개호·박민수·박남춘·정성호·인재근·이종걸·장병완·홍종학 의원 발의)

3월 4일 회부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5. 3. 4 부좌현·이개호·이상직·박남춘·박민수·이원욱·김관영·이찬열·김광진·노영민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운룡 의원 대표발의)

(2015. 3. 4 이운룡·정갑윤·유의동·김태환·홍지만·정문헌·정희수·이주영·이한성·김태원·박대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5일 회부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유승희・박민수・인재근・이종걸・박남춘・이개호・장병완・홍종학・백재현・신경민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박민수・윤관석・김승남・경대수・전병헌・김영록・김춘진・신정훈・유성엽・이춘석 의원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5. 3. 6 박민식・이한성・김태환・김성찬・황진하・김광림・홍일표・안덕수・권성동・안효대・여상규・경대수・이채익 의원 발의)

이상 5건 3월 9일 회부됨